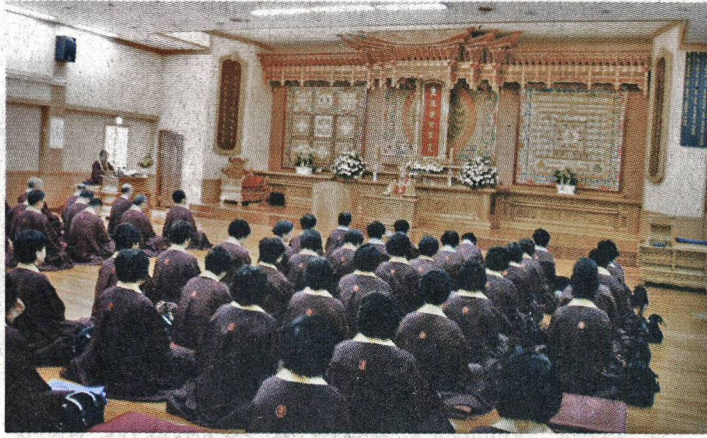




용맹 정진으로 '새 종풍 운동'

제74회 추계강공 회향



▲제74회 추계강공 개강발사.

러 스승님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모쪼록 이번 강공이 일선 사원에서 경험한 교화방편을 상호교환하고, 종단발전 방안을 숙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74회 강공회는 27일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개강발사, 중앙총의회, 종단현안설명, 과천공원 경행, 의식과 독송 특강, 승단총회, 종강발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예산 및 추가 경정 심의를 비롯해 축막, 연장근무 심의, 종헌 중법 개정 관련 건 등의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복지재단 이사회에선 예산 및 추가경정안 관련 심의가 열렸다. 중앙총의회에선 예산 및 추가경정 심의와 종헌 중법 개정 관련 건, 동해중학교 감사 선출의 건 등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5면)

총기 38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열린 제74회 추계 강공회가 원만 회향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30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린 종강발사 법어를 통해 "무슨 일이든 회향할 때가 되면 후회와 아쉬움을 갖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설령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각고의 노력이 있다면 추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령 예하는 이와함께 "원정 종조님의 유지를 이어 '새 종풍 운동'을 제안한다"며 "제철 소의 용광로가 갖가지 쇠를 녹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듯 번뇌망상과 장애를 일시에 녹이는 용맹정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강공이 원만히 회향할 수 있기까지 여

제3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성료

'재가불교와 사회참여' 심도 있는 논의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세미나.

불교총지중이 주관한 제3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총지중 교육원 주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후원)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서울과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됐다.

대회 첫날인 22일에는 올림픽 파크텔 올림픽홀에서 환영만찬과 총지사 참배 행사가 마련됐으며, 23일 오전부터 '재가불교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의견발표를 했다. 또 23일과 24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템플스테이와 생활불교 관련 세부실천 방안 논의, 각국 대표의 재가불교활동 소개, 25일 서울과 강원도 원주시 등지에서 개최됐다.

효강 종령예하는 환영사에서 "우리 총지중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재가종단으로서 일찍부터 불교가 일상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특히 원정

대상사제께서는 불교는 관념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며 일상 생활 가운데서 중생들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하면서 실천되는 불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종령예하는 이와함께 "총지중은 생활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의 모든 재가불교와 생활불교 실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대회를 통하여 불자 여러분의 우의가 돈독해지고 좋은 의견이 불교 발전에 반영되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을 함께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대회 조직위원장 화령 정사는 "관념적인 불교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 구현되는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재가자의 각성과 노력이 요구되기에 재가불교지도자대회라고 명명된 것"이라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세계 각국에서 재가불교운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모인다는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독일, 중국, 미국 등 세계 10여개국 약 30여명의 재가 불교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관련 학자와 승려들이 '재가불교와 사회참여'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10, 12면)

제1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개최



▲제1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16~18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입정교성회 교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종단협의회 회장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 총지중 원승 통리원장 등 한중일 3개국 300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한 이번 대회에서는 '불교가 이루어야 할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3국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종조법설

효순(孝順)

형상없는 이불(理佛)을 믿고 깨달는데 육체에 병이 없고, 부모조상의 영식을 천도하는데 현재 사업과 자손이 잘되며,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순하는데 이어지는 미래 자손들의 효순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법설집 제2장 수행편

네팔 만다라 순회특별전 회향

"한-네팔 문화 공감대 형성 기여"



▲만다라전에 참석한 교도들이 전시작품을 보고 있다.

불교총지중이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네팔 만다라 순회특별전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전시회 첫날 총지사 3층 서원당에서 봉행된 개막법회는 총부부장 경원정사의 집공으로 유가삼일, 실지정진, 네팔불교의식,

환영사, 내빈축사, 찬불가 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원승 통리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밀교를 대표하는 총지중에서 네팔만다라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개막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은 밀교종단으로서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또 "만다라 특별전 개막법회가 선업의 종자를 심는 법석이 되고, 일체 소원성취와 깨달음을 이루는 길목이 되기를 자심으로 서원한다"고 말했다.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회장은 신도대표 축사에서 "만다라가 그려하듯 우리는 조화와 화합으로 불국정토, 만다라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화합과 조화, 상생이 공존하는 만다라처럼 우리의 마음자리도 그렇게 되도록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네팔 대사관 아다브 카탈 공사는 축사에서 "만다라와 탱화는 부처님 삶의 중요한 가르침을 묘사한 그림"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한국과 네팔 국민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법회엔 총지중 중앙총의회 의장 대원 정사, 부산경남 교구 신인록 회장, 네팔 우르겐 라마 스님, 불교방송 김영일 사장,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전국 각 교구 스승과 교도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는 총지중 통리원과 밀교연구소, (주)한네인투어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한 네팔대사관,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후원했으며, 전시 판매 관련 수익금 중 일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국 내 네팔노동자와 난민을 위한 성금으로 쓰여진다.

특별전엔 금강계, 태장계 만다라를 비롯해 네팔계 칼라차크라,

별존 만다라, 아미타불, 관음보살, 파라보살 탱화, 등 35점이 전시됐으며, 각각 업장소멸, 소원성취, 무병장수, 행복, 사랑, 가정화목 등의 소원을 담고 있다.

한네인투어 윤준민 대리는 "밀교종단인 총지중에서 네팔 밀교 만다라전을 개최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전시 공간이 매우 좋았고 종단의 많은 협조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총지중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총지중의 위상이 대외적으로 드높아 졌다"며 특히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양부만다라를 봉안하고 있는 총지중 서원당과 만다라 친견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불교를 지향하는 총지중을 널리 알렸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윤우채 기자 (관련기사 2, 12면)

총기 38주년 창교절 기념 제3회 합창제

총지중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총기 38주년 창교절을 맞이하여 제3회 합창제를 마련하였사오니 교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2월 20일(일)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총지사



특별 인터뷰 / 네팔 만다라展

“총지종과 밀교 관심 고조시킨 행사”

- 네팔 만다라 특별전, 의의와 성과

‘네팔 만다라 특별전’이 지난 10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법경 정사(총지종 밀교연구소)와 함께 이번 특별전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짚어 보았다. -편집자 주

▲이번 전시회의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한국과 네팔간의 불교교류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열려진 이번 전시회는 승단의 강공회와 국제불교지도자대회에 맞춰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불교총지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네팔관광청과 주한네팔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전시행사로 만다라의 전시와 판매를 통해 들어온 수익금의 일부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 내 네팔노동자와 단민을 돕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총지종은 밀교종단으로서 밀교를 대표하는 만다라를 직접 봉안하고 있어 네팔만다라의 전시는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총지종단에서는 좋은 취지의 행사를 유치한 것과 국제전시회를 무난하게 치루었다는 점

에서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네팔 만다라 특별전의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밀교종단인 총지종에서 네팔 만다라를 전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언론방송을 적극 활용해 총지종에서 국제 전시 행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행사를

▲ 전시된 만다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번에 전시된 만다라는 종단에서 봉안하고 있는 태장계 금강계만다라를 비롯하여 칼라차크라, 따라보살, 별존만다라 등 35점을 전시하였는데, 건강, 무병장수, 행복, 사랑, 업장소멸, 재난소멸, 소원성취, 사업발전, 가정화목 등 우리 중생들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를 그리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였고, 2002년,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H.H 랑구 린포체의 Vajra Vidya Institute(금강지혜연구소)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2002년,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Vajra Vidya Institute(금강지혜연구소)를 위하여 달라이라마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어 주기도 했습니다.

2005년, H.H 랑구 린포체가

▲ 이번 행사는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결과를 남긴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심 속 사원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숙고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고 봅니다. 이후 경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총지종과 밀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웃 주민, 직장인들에게 다가가는 좀 더 가까운 총지종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려있는 사찰로서 각종 행사에 이웃을 초청하고 유대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원은 이웃이나 주변 직장인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같은 공간,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도심교과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고심하게 한 행사였습니다. 만다라 전시 그 자체 보다 교화방편을 위한 노력에 많은 교훈을 남기고 시사하는 바가 큰 행사였습니다.

“도심 속 사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통해서 종단을 끊임없이 홍보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포교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행사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일반인이나 불자들이 만다라 전시장만 관람하지 않고 밀교의 양부만다라를 봉안하고 있는 총지종의 서원당을 직접 참배하고 만다라를 친견할 수 있었던 것이 행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다라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주변 직장인들에게 종단을 홍보하고 경내 출입을 자유롭게 하여 종단의 이미지를 제고한 것이 성과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과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다라를 좀처럼 접하기 쉽지 않은 만다라를 승단과 교도, 불교인, 이웃 주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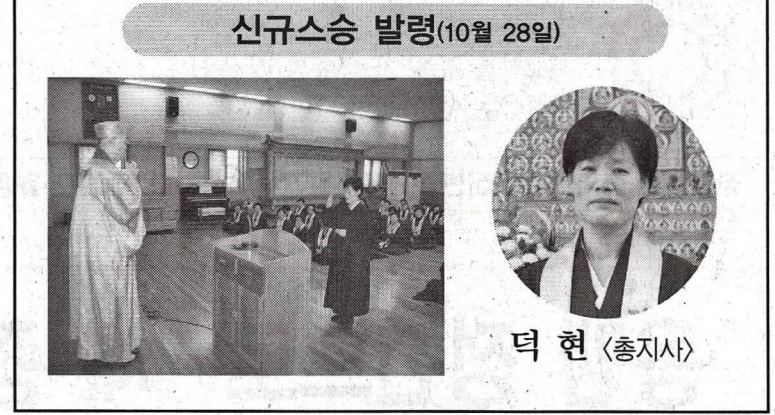
▲ 정밀한 만다라를 그리려면 대단한 공력이 들어갈 텐데요, 제작자는 어떤 분입니까?

네팔 툴라카 출신의 카말 바하두르 라마라는 분으로 승려이자 불교 탕카 예술가입니다. 6살에 불교에 입문하였고, 13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5살때인 1968년에 Vajra Buddhist Art(금강불교미술)라는 탕카 그림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2001년에는, 만다

라를 그리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였고, 2002년,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H.H 랑구 린포체의 Vajra Vidya Institute(금강지혜연구소)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2002년,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Vajra Vidya Institute(금강지혜연구소)를 위하여 달라이라마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어 주기도 했습니다.

▲ 해외불교교과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총지종단이 네팔불교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차 네팔불교와의 교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해중, 학부모 위한 초청강연회 실시 법공정사, '총지종의 이해' 강연

11월 9일 종립 동해중학교 도서실에서 법공 재단 이사장 '불교와 총지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법공 이사는 1시간 30분간 진행된 특강에서 "총지종은 법신 이불(理佛)을 교주로 하고, 모든 중생을 언제 어디서나 구제해 주는 대성 관자재 보살의 본심진언(本心眞言)인 육자대명주(六字大明呪) '옴나미반메훔'을 본존으로 하는 밀교종"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엔 동해중 김문수 교장과 김수연 학부모 회장, 강근순 불교어머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만다라세상

유가(儒家)의 경전에서 이르기를,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기고자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심지(心圖)를 먼저 괴롭히고, 그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며, 그 몸뚱이를 주리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위없는 큰 깨달음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해서 무엇 하겠는가!

수행자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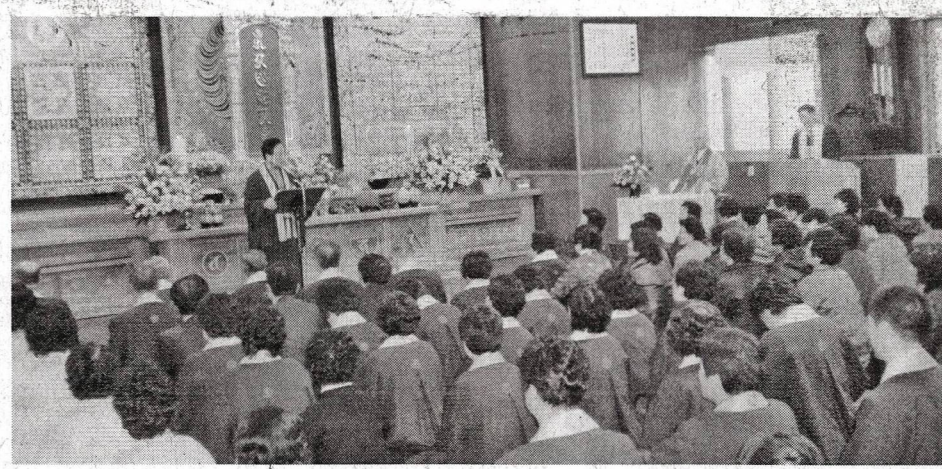
어찌 큰 책임만이 있겠는가! 생각해보니, 선배들은 대근거를 갖추었으면서도 깨치지 못하거나 사무치 못한 날에는 밥 짓고 절구질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아무런 천한 일이라도 감히 꺼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방종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려 하지 않는가!

진주 화음사 지진불사 봉행



▶ 지난달 13일 진주 화음사가 서원당 신축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불사에는 원승 통리원장, 경원 총무부장, 인선 사회부장, 부산·경남 교구장 지광 정사, 정각사 대원 주교, 도현 정사, 덕화사 주교 법등 정사, 실보사 주교 우인 정사, 화음사 주교 수현 정사, 자심관 전수와 화음사 원행심 신정희장, 간부진 등이 참석했다.

부산 법성사 만다라 불사 봉행



11월 13일 부산 법성사가 만다라 봉안불사를 봉행했다. 호령 중령예하는 만다라 봉안의 의미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불사에는 원승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부산·경남 교구 스승, 법성사 묘원 전수, 정경정 신정희장 외 간부진, 만다라합창단 등 100여명의 교도들이 참석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천사 윤 찬 10.19 10,000	기로원 상지화 10.19 10,000	백월사 박인철 10.26 5,000	실지사 송우섭 10.01 5,000	총지사 홍연수 10. 10,000
관성사 정법계 10.23 10,000	기로원 수증원 10.19 10,000	백월사 박인국 10.26 5,000	실지사 이희수 10.26 10,000	흥국사 지 정 10.19 20,000
관성사 해 정 10.23 10,000	기로원 총지화 10.19 10,000	백월사 이갑진 10.26 10,000	실지사 정경자 10.29 5,000	화음사 류재환 10.23 10,000
관성사 조정숙 10.27 10,000	단음사 법연지 10.23 5,000	삼밀사 원 송 10.01 10,000	실지사 송우섭 10.29 5,000	해정사 강보구 10.05 20,000
관성사 박현숙 10.27 10,000	만보사 유복근 10.20 30,000	삼밀사 인법계 10.01 10,000	운천사 반야화 10.28 20,000	해정사 최영례 10.14 10,000
관성사 황성미 10.28 10,000	밀인사 이재갑 10.09 20,000	삼밀사 원 송 10.29 10,000	자석사 이판도 10.28 20,000	해정사 오혜민 10.22 10,000
관성사 이해원 10.30 5,000	밀인사 이해성 10.16 20,000	삼밀사 인법계 10.29 10,000	정각사 윤선자 10.01 10,000	해정사 혜원정 10.22 10,000
관성사 정인순 10.22 10,000	밀인사 표심해 10.26 10,000	선림사 정복지 10.19 10,000	정각사 구정희 10.23 20,000	해정사 서 령 10.22 10,000
관음사 신막심 10.28 10,000	밀인사 원 당 10.26 10,000	선림사 심지장 10.19 10,000	정각사 윤선자 10.29 10,000	해정사 정은선 10.27 40,000
기로원 대 관 10.19 10,000	밀인사 이연수 10.29 10,000	선림사 황귀석 10.19 10,000	정각사 박수빈 10.29 10,000	해정사 강보구 10.28 20,000
기로원 대자행 10.19 10,000	밀인사 정정희 10.29 5,000	성화사 윤희배 10.19 50,000	지인사 연동원 10.28 10,000	김문수 10.26 20,000
기로원 밀공정 10.19 10,000	법천사 지 정 10.19 10,000	수인사 공경원 10.08 10,000	지인사 허성동 10.28 20,000	이숙남 10.09 30,000
기로원 범수원 10.19 10,000	법천사 원만원 10.19 10,000	수인사 김봉기 10.28 10,000	총지사 최혜선 10.20 20,000	임동수 10.29 40,000
기로원 범장화 10.19 10,000	법천사 박말조 10.19 5,000	수인사 한애숙 10.29 20,000	총지사 최순전 10.26 20,000	안효정 10.27 20,000
기로원 범지원 10.19 10,000	벽룡사 법 일 10.19 10,000	실보사 송희준 10.21 10,000	총지사 유성열 10.29 10,000	장영택 10.20 50,000
기로원 불멸심 10.19 10,000	벽룡사 이희숙 10.07 10,000	실보사 보명심 10.29 10,000	총지사 이인성 10.29 30,000	
기로원 사홍화 10.19 10,000	백월사 류승태 10.21 10,000	실보사 우 인 10.29 10,000	총지사 박계숙 10.29 2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자료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지족(知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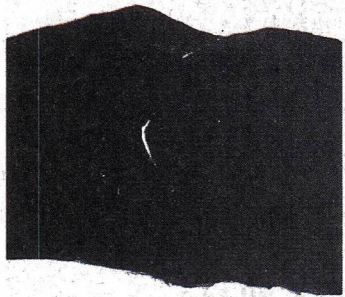


물속에 사는 하마는 자기 배가 가득 차면 그 많은 물을 두고도 더 이상

마시지 않듯이, 정글의 왕인 사자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듯이, 우리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족함을 아는 것이 부자입니다.

-지성스님(사단법인 '함께 사는 세상' 이사)

역경과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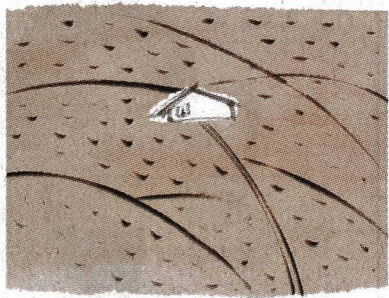


지금의 즐겁고 좋은 일은 인연 따라 생긴 것으로, 인연이 다하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니

마냥 기쁨에 들뜬 일이 아닙니다. 지금 겪는 고초와 역경 또한 지나온 인연에 의해 생긴 것으로, 인연이 다하면 마침내는 없어질 것이니 너무 원통해 할 일만은 아닙니다.

-배광식(서울대학교수)

보기 나름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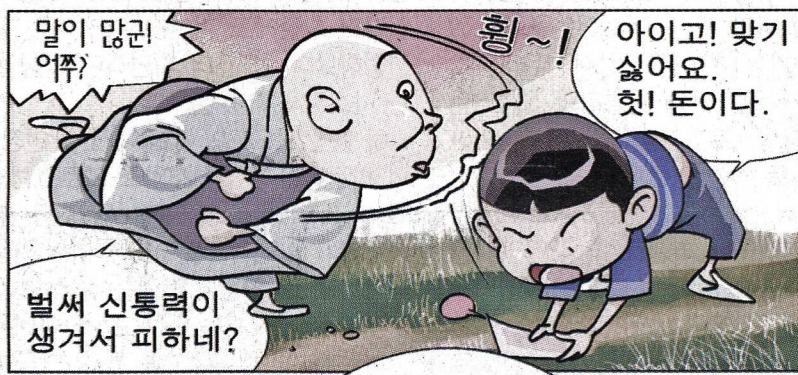


두 사람이 구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 받았 습니다. "저 달이 동글

때는 뽀족한 모습이 어디로 갔으며, 뽀족할 때는 둥근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뽀족할 때는 둥근 모습이 숨고 동글 때는 뽀족한 모습이 숨겠지요."

우리도 둥근 모습과 뽀족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단지 어떤 사람에게는 둥근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는 뽀족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을 뿐이지요.

-문운정 (수필가)



내용 출처: "불교 총전" 교법 편 17p~18p

이달의 명상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면상무진공양구(面上無嗔供養具) 구리무진토묘향(口裡無嗔吐妙香) 심리무진시진보(心裡無嗔是眞寶) 무염무구시진상(無染無垢是眞常)

-문수보살 진성계

꿈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훈 창조 협동 경애 교목 보리수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민다리의 복지세상 ⑫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문제점과 개선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주년이 지났다. 지금껏 유지되어온 4대보험 체계가 5대보험이 되면서 월 2천 몇백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었고,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가 급증한 결과 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25만 명을 넘어섰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극히 낮은 형편이다. 게다가 요양기관의 영리화로 인한 무분별한 경쟁과 서비스 질 저하, 재정누수 등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험체계를 정립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도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전체 노인인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의의도 갖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계획된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역할로 이분되어 있다. 이의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사회보험이나 급여내용으로 보면 사회서비스가 된다.

그 동안 장기요양제도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단시일 내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에 정책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가에 의해 민간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이 독려되었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경쟁하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장기요양기관은 불과 1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의 확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요양시설은 1년만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

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은 충족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외곽에 주로 설치되면서 지역별 편차가 심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은 57.9퍼센트의 충족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요는 많아 경쟁이 치열한 반면 지역은 공실율이 높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가시설의 경우 일부 지역은 과다 설치되어 과당 경쟁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되며, 정부예산으로 설치·지원되는 법인시설을 공공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민간위탁방식이기에 실제 공공요양기관의 수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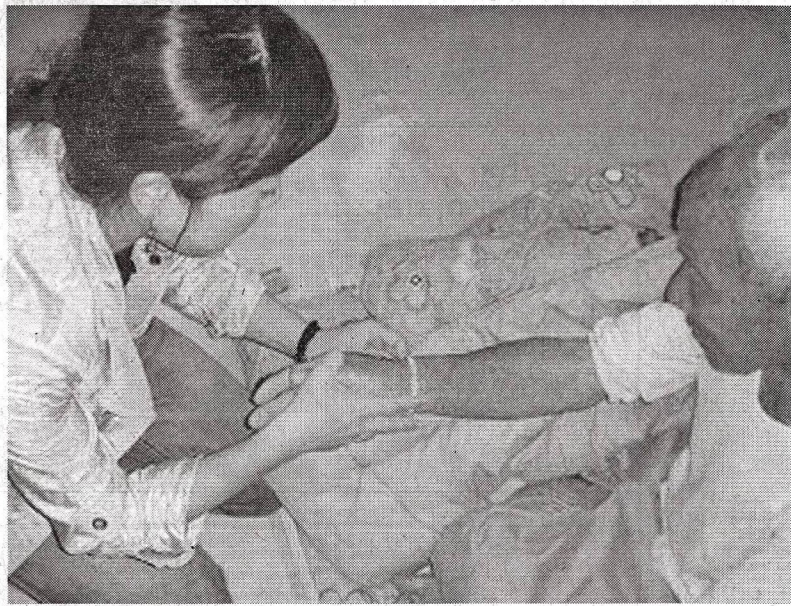
대상자를 보면, 현재 총 47만 2,647명이 장기요양 인정신청(노인인구의 9퍼센트)을 하였고 신청자의 63.5퍼센트인 25만 9,456명이 장기요양 인정

장기요양시설 태부족 양질의 서비스 인력 확보가 관건

등급(1~3등급)을 받았으며 인정자 중 78퍼센트인 20만 2,492명이 급여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5퍼센트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 현재의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29만 명(노인인구의 5.59퍼센트) 수준까지 대상자수가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전체 인정자의 53.5퍼센트, 이용자의 68.6퍼센트로서 급여 이용자의 대다수가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현재 500만명의 노인인구 중 12퍼센트(약 42만 명) 정도가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과 인프라 구축이 제도안착의 핵심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33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그중 10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월평균 3~4만 명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을 간호하고 있다.

현재 42만 6,495명이나 배출되어 수요에 비해 과다 배출되어 전문성 부족 및 자질 논란 야기되고 있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로 ▲서비스 대상자의 제한성, ▲서비스 내용의 포괄성 부족, ▲본인부담의 과중 등의 문제는 물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의 부족, ▲이용자를 중심에 두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의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직접적인 소득이전 대신

가족의 기능을 보완 하고 대체하는 것을 통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그를 통한 다른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보장,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책이다.

하지만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발전방안과 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의 마련, 전달체계 구축, 공공요양기관 구축 등 기본적인 정책대안없이 시행됨으로 인해 서비스이용금액의 할인제도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지금까지 문제되어 온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또한 요양시설도 단순히 수용이 아니라 대상자의 재활과 삶의 질을 고려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의 수가제도 개편만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선진 외국의 사례에 기초한 양질의 서비스 인력 수와 배치 기준, 표준적인 시설 기준 등이 재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 노인복지시설 공양처.

총기동의보감

오늘도 어지러우세요?...

여성들의 피할 수 없는 적, 빈혈



조선휘 원장

(여성美 한의원)

사춘기 시절 매달 경험하는 생리현상 또는 결혼과 임신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라면 생리출혈 기간이나 임신 중에 누구나 한번쯤은 어지러움, 피로 혹은 두통과 더불어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빈혈"로 인해서 적잖은 괴로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결핍성 빈혈로 주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자궁내 질환으로 인해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임신기간 동안 산모가 태아의 영양공급으로 인해서 철분 부족현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위장관 출혈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출혈이 장기화될 경우 안색의 창백함과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등의 전신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의 원인을 '헐러' 즉 혈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우리 인체는 무형의 기와 유형의 혈액이 있어서 오장육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체 각 기관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조절해준다. 이때 혈액은 기운을 따라 순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의 회복을 위해서는 혈액의 보충과 더불어 기운의 회복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적을 때 발생

철분제 복용으로 증상 개선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하얗게 보인단지 운 동이나 기타 활동 등 몸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호흡곤란과 함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힘이 빠져 나가는 것도 이 증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빈혈은 의학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양이 적거나 숫자가 적은 상태를 말하는 데 대개의 경우 어지러움을 동반하지만 반드시 어지러움과 빈혈이라고 진단하지는 않는다.

빈혈은 운동시 호흡곤란이 오거나 맥박이 심하게 뛰고 쉽게 피로하며 두통, 귀가 울리는 증상을 동반한다. 빈혈의 원인은 무수히 많으며 그 증상의 정도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은 철

도 함께 유지시켜줘야 한다. 빈혈의 치료법은 원인에 따라서 다르며, 보통 철분 부족에서 오는 빈혈은 철분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개선된다. 한방에서는 녹용, 당귀, 천궁 등의 약재 통해서 적혈구의 형성을 돕고 혈액색소의 양을 늘려서 증상을 완화시킨다.

특히 임신 5개월 이상 되면 빈혈에 방을 위해서 철분제를 복용하는데 위장이 약한 여성들에게는 소화장애나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한방치료를 통해서 조절기능을 높이고 혈액색소를 도와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더불어 고단백 중심의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균형 잡힌 식습관도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알림방

- ▶ 11월 6일~12월 24일 허름(참회) 불공
- ▶ 11월 25일 혜산정사 49세 막제가 총기사에서 있습니다.
- ▶ 11월 30일~12월 6일 월초 불공
- ▶ 정보 발행일이 매월 20일 경으로 변경됐습니다.

여성美 조선휘 원장

여성美 한의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전문의 상담”
KBS, TV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뎃),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자악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신시역3번출구 신시역1번출구

30M 지하점유구 20M 1분거리

STARBUCKS 여성美한의원

생혈액분석기

자동필광진단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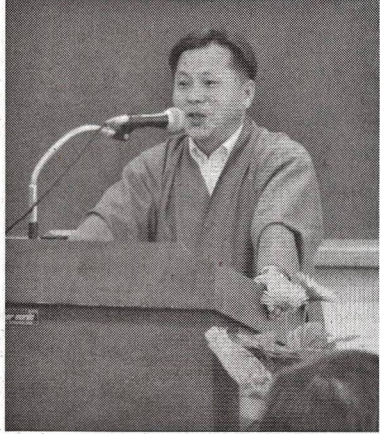
좌온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의식의 집공과 독송

74회 추계강공 특강 지상중계

중단 정체성을 찾자



법 경 (밀교연구소)

의식은 예입니다. 특히 불교의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독송입니다. 이를 법파라고 합니다. 소리의 높낮음에 있어 곡조에 맞게 읊는 소리로 부처님을 칭송하거나 법을 노래처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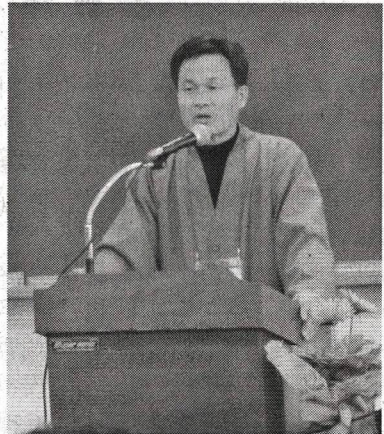
이 법파의 소리 가락을 어산이라고 하는데, 어산이란 물고기가 노니는 것처럼 그 모양이 마치 산과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의식은 독송에 있고 그 독송은 소리의 고저장단과 빠르게 느리게 하는 데서 의례가 갖추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파의 소리를 듣는 자는 맑은 믿음(정신)을 얻으며 지방의 불보살들도 이 풍영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이들의 공덕을 성취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단에서는 '진언연송, 불공, 천도제, 법문 상담, 회사법' 등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실천법으로 행하여 왔지만 '의식'과 '독송'에 대해서는 일체의 교육과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참화-오대서원-회향으로 이어지는 우리 종단의 의식 집공을 이원화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행해지는 집공은 좀 더 유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종단은 염불만을 하지만 조계종 같은 곳에서는 마치 발성 연습하듯이 고저장단을 두고 의식작법이 있습니다. 우리 종단도 이같은 집공 독송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각각히 말씀드리면 공식 집공에서는 조금 빠른 듯 하게, 천도제는 좀 느리게,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고저장단 넣이 맛깔스럽게 독송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희 종단 장례 전공 공부를 하신 정사님과 의식 독송과 관련해 공동 운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경에 워크샵이나 토론회를 거쳐 결론이 나면 집공 독송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은 중단 정체성을 찾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출가승이 아닙니다. 재가에 있으면서 생활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불교는 말 그대로 생활속에서 불교가 구현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상속에서 절제된 생활을 하고 주위 사람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가와 재가는 오계 중에서 살, 도, 음, 망, 음주 중에서 사음 관련 부분에서 구분됩니다. 재가자도 오계를 수지하는데 출가자는 일체의 사음을 말아야 하지만 재가자는 배우자와의 정음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출가를 했느냐 하면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전일하게 모으고,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탁발에 의지해 살아가기에 대개 마을에서 10여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시대엔 한적한

곳이 잘 없습니다. 사회와도 분리돼서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족이나 부모를 두고 출가하면 남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가의 의미가 적어진 것입니다. 출, 재가에 얽매지 말아야 합니다. 요는 자신이 얼마나 잘 닦느냐는 것입니다. 출가승이면서 제대로 못한다면 재가자로 살며 깨끗하고 원만히 사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재가자가 깨달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은, "하나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수천 수만의 재가자가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우리 종단을 생활불교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출가수행자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



화 령 (중앙교육원장)

만 현대에선 여러모로 맞지 않습니다. 출가승을 비난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밀교를 수행법으로 하고 밖으로는 생활불교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참는 덕

"여러 비구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사지를 마디마디 찢는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 성내지 말고 또한 입을 정하게 지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성내는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면 자기의 도를 스스로 방해하고 공덕과 이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참는 일이 덕이 되는 것은 계를 가지거나 고행하는 일로도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참을 줄 아는 사람이야 용기 있는 대장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꾸밈음을 감로수 마시듯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에 들어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냄의 해독은 착한 법을 부수고 좋은 명예를 잃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도 남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 항상 막고 지켜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공덕을 빼앗는 도둑으로 성냄보다 더한 것은 없다. 세상 사람은 욕심만 있고 자기를 다스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 성냄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출가 수행자가 성내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그것은 마치 맑게 갠 날에 뇌성 벼락이 치는 격이다. <遺教經 유교경>

◇ 악인은 침묵으로 대하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얼굴빛이 오늘처럼 밝고 화평스러운 것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 금빛처럼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는 물어앉아 여쭙었다.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 이십여 년이 되었지만 오늘처럼 얼굴빛이 밝고 화평하신 것을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아난다여, 그것은 두 가지 인연으로 그러하다. 두 가지 인연이란 내가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와 열반에 들 때이다. 내가 오늘 밤중에 열반에 들려고 해서 안색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난다는 깜짝 놀라 여쭙할 바를 물었다.

"어찌 그렇게 빨리 열반에 드시렵니까? 세상에 빛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춘다(瞋心)*에게 가서 격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여라. 여래에게 공양한 인연으로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어야. 너도 잘 알아 두어야. 반드시 여래를 공경하고 교법을 배우고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찬다카** 비구는 성미가 급하고 과격하여 욕지거리를 잘하고 말이 많습니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열반하고 난 후에는 찬다카를 위해 대중들이 침묵을 지키고 그를 상대하여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껴 저절로 누워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자리를 깔게 하셨다. 그리고 오른 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굽혀 다리를 포개고 누워 성인의 바른 지혜

를 생각하셨다.

<장아함 반니원경 長阿含 般泥洹經>

*춘다(瞋心): 부처님은 금세공 춘다가 올린 공양을 받고 병환이 도져 위독해졌다. 이것이 최후의 공양이었다.

**찬다카: 부처님 태자 시절의 시종, 출가하여 말쟁을 부렸다.

◇ 계행과 정진으로 얻은 자유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비구는 또 눈, 귀, 코, 혀, 몸, 생각 등 감각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

어나지 않고 항상 순결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모든 감각을 잘 단속하여 그 공덕이 갖추어지면, 마음속으로 티없이 깨끗한 안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감각의 문을 보호한 공덕의 과보입니다.

또 어떤 것이 수행자의 지족(知足)인가 하면, 산란하고 험뻑거리는 생각을 쉬어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에 머물며, 망설이고 의심하는 데서 벗어나 깨끗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남에게서 빌린 돈으로 처자를 부양하고 스

스로도 만족하는 것과 같이, 비구도 계행과 정진으로 묵은 죄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업(道業)에 의해 스스로 평안을 얻어 만족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 남의 노예가 되어 마음대로 오고 가지 못하다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떳떳한 자유인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같이, 비구도 청정한 계행과 즐거운 정진의 힘으로 세속적인 오욕(五慾)의 노예에서 벗어나 독립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비구가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갖추어 만족할 줄 알고 번뇌에서 벗어나 현세의 과보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가다의 왕 아지타사투는 감격한 끝에 이렇게 여쭙었다.

◇ 허물어진 탐에는 흠을 바를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들과 함께 파비에 있는 어떤 동산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다. 부처님은 달이 밝은 보름 밤에 맨땅에 앉아 비구들에게 법을 설한 다음 사리뿔타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사방에서 많은 비구들이 모여 함께 정진하면서 자지 않는다. 나는 등이 아파 졸 쉬고 싶으니, 네가 비구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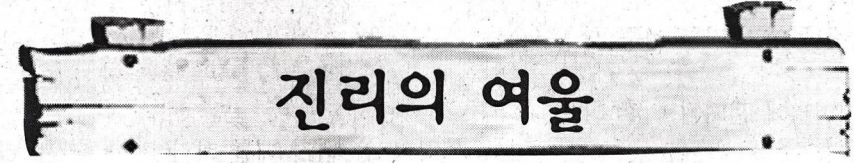
부처님은 가사(袈裟)를 네 겹으로 접어 깔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사리뿔타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이 파바성은 이교도 나간타가 살던 곳인데 그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두 파로 갈라져 서로 잘잘못을 캐면서 시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법을 잘 알지만 너는 그것을 모른다. 나는 바른 법을 가졌는데 너는 사견(邪見)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말이 서로 얽혀 앞뒤가 없이 저마다 자기 말만을 참되고 바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간타를 따르던 이교도 사람들은 다투는 무리들을 싫어합니다. 옳다고 주장하는 그 법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허물어진 탐에는 다시 흠을 바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래의 법은 올바르게 참되어 해탈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탐은 정열하게 꾸미기가 쉬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교법과 계율을 모아 그들과 같은 다름을 막고 청정한 수행을 쌓아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해야 했습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안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저들처럼 대중을 어지럽힌다면 화합한 대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다름의 근본을 뽑아야 합니다. 맑힌 원한이 다했을 때는 그 마음을 거두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성냄이 뒤떨어지면 시기하고 교활하여 스스로 자기 소견에 말려들어 사견에 해매고 치우친 편견에 떨어지고 맙니다."

부처님은 사리뿔타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셨다. <장아함 중집경 長阿含 衆集經>



진리의 여울

치 부자가 참고의 문을 단속하여 도둑의 침범을 막듯이, 비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에는 어떤 현상이나 특수한 환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두면 탐욕과 애착과 비애 등의 부정법(不淨法)에 흘러가고 말 것이요. 그러므로 눈을 잘 단속하여 감각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보는 감각이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순결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요. 소리를 듣는 귀와 냄새를 맡는 코, 맛을 보는 혀, 차고 덥고 거칠고 부드러운을 느끼는 몸, 시비와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도 그와 같아서 어떤 현상이나 특수한 환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의식하는 것이 모두 제 길을 벗

어려지지 않고 항상 순결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모든 감각을 잘 단속하여 그 공덕이 갖추어지면, 마음속으로 티없이 깨끗한 안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감각의 문을 보호한 공덕의 과보입니다. 또 어떤 것이 수행자의 지족(知足)인가 하면, 산란하고 험뻑거리는 생각을 쉬어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에 머물며, 망설이고 의심하는 데서 벗어나 깨끗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남에게서 빌린 돈으로 처자를 부양하고 스

치매, 중풍,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가정처럼 포근한 만다라요양원

불교충지중 사회복지재단 부설 흥국사 만다라요양원은 10월 19일 개원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정처럼 포근한 자비와 사랑을 제공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전국 어느곳에서나 가능함. (장기요양등급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 1등급: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
 - 2등급: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 입소정원 : 6명 (선착순 입소함)

□ 본인부담금 : 1등급 : 40만원, 2등급 : 월 35만원

□ 연락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150-2, 흥국사
전 화 : 063-224-4358, 016-651-8053. 담당자: 지정 정사





진선수행의 길

동참불공

동참불공은 공식불공이 끝난 뒤 각자 서원이 있는 대중들이 다함께 동참하여 본인의 서원과 다른 이의 서원을 서로 발원 해주는 불공이다. 서원이 있는 진인행자가 본인이나 가족, 유년중생의 이름을 명패에 적어 서원을 올린다.

이 서원은 준제진언의 사중수법에 의해 행하여진다. 영식왕생, 제재난, 소구여의, 영일제인경애의 서원사항을 동참판에 걸어놓고 불공을 한다.

동참불공의 서원사항은 사원의 스승님과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명패는 꼭 필요한 서원만 적어서 절도 록 한다.

명패를 많이 걸기 보다는 본인이나 가정에서 다급한 서원이나 중요한 서원 한가지만을 정하여 하는 것이 정진에 더욱 효과적이며 소원 성취도 빨리 된다.

오로지 지심으로 한 가지 서원정진에 전심전력하여 불공하고 실천행을 했을 때 서원이 속히 이루어진다.

▶수행법
우리가 서원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깨끗하고 바른 업을 마땅히 쌓으려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 깨끗한 수행과 서원성취를 위해서도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해탈도론”에서 탐욕은 어두운 것으로 장애되는 길이니 모든 착한 것을 장애하는 까닭이요, 탐욕은 도적이나 공덕의 물건을 훔치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정진하는 것이 참다운 불공이요, 진정한 보살이다.

보살의 실천행은 빠른 서원성취를 이루게 한다. 동참불공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과 타인 서원 서로 발원 나와 남을 함께 위한 불공

▶의미
나의 서원은 물론 대중들의 서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함께 서원하고 불공하는데 본래의 뜻이 있다. 부처님의 제자인 목건련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불공할 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대중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하였다. 한 사람이 서원하여 불공하는 것보다

여러 대중이 같이 불공을 해 줌으로서 속히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보살행인 수행법이다.

그러나 그 행에 있어 지나친 욕심을 갖고 많은 서원을 걸어서는 안 된다. 바라는 서원을 걸어 놓는다고 해서 모두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아

진인행자 본인이 서원함에 직접 나와서 불공을 할 때 그 서원은 능히 성취를 이룰 것이요, 그 불공은 진정한 의미의 불공이라 할 수 있다.

동참 명패를 걸어놓고 서원함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미 동참이 아니며, 그것은 남에게 빚지는 것이다. 자신의 서원성취도 더디어질 뿐이다.

월초불공이나 자성일에 반드시 서원함에 나와서 동참 불공을 하고 다른 이의 서원까지 지심으로 서원 정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반야경”에서 만약 사람이 경과 계승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공하면 그 복이 심히 많을 것이다” 했다.

바로 동참불공은 나를 위하여, 또 남을 위한 불공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서원불공을 같이 하는 가운데 공덕이 일어나는 것이다.

불교설화 <38>

목어(木魚) 이야기

암자가 낡아 구멍난 벽에 바람이 들자, 스님들은 더 참지 못하고 하나들 떠나갔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일 무렵에는 노승과 아이만 남았다.

노승은 스님들을 불렀지 않았다. 그때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은 이러했다.

“가는 사람은 불잡지 말고, 오는 사람은 막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다 쓰러져 가는 암자에 올 사람은 없을 듯 하였다. 아이는 암자가 쓸쓸해지는 것이 싫었다. 암자는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노을이 질 때면 더욱 고즈넉해졌다. 안개가 낀

날, 탁발을 하러 나온 마을에서 암자를 올려다 보게 되면 산길 끝에 있는 암자는 곧 안개에 지워져 버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 노승은 아이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이에게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암자 가운데 방에는 작은 종이, 처마 밑에는 작은 북과, 구름무늬가 새겨진 운판(雲版)과, 물고기 모양의 목어(木魚)가 매달려 있었는데, 노승은 이것들을 사물(四物)이라고 불렀다. 아이가 심심해하면 날마다 한 가지씩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소는 암자 옆, 햇빛이 잘 드는 부도탑 돌계단에서였다. 부도탑 둘레는 움푹 들어간 양지바른 곳으로 늘 따뜻하였다. 노승은 돌계단에 앉아 이야기하면서 가끔 부도탑의 키보다 더 큰 소나무를 가리키곤 하였다.

“내가 암자에 왔을 때 저 소나무 키가 너만했었다.”

“그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하셨어요, 어서 오늘은 목어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제야 노승은 목어 얘기를 아주 친절히 꺼내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어느 절에서였단다.”

절이라고는 하지만 암자 규모였으므로 주지스님을 포함하여 그의 제자 서너 명이 겨우 정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스님이 문제였다. 주지스님이 때때로 호되게 꾸짖지만 그 스님은 출가하기 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몰래 절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다가 하면 여자와 놀기도 하고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절의 스님들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특히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였고 잠이 많아서 새벽 예불을 빼먹기 일쑤였다. 공부도 못해보고, 불경을 읽지 않고 틈만 나면 뒷방이나 산으로 몰래 가서 도둑질을 자곤 하였다.

“저 놈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부처님도 돌아가시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부처님 말씀을 받먹듯 여겼으니 어찌 무거운 과보가 없겠느냐.”

주지스님의 말대로 그 스님에게 내려진 과보는 가혹했다. 몇 년 후 그 스님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몸을 병에 걸려 서너 달만에 죽고 말았다. 그가 죽고 난 지 며칠 후였다. 그가 주지스님의 꿈속에 나타났는데,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환생 해 있었다.

“큰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로 변해 있었는데, 등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자라 있었다. 그 나무가 몸을 짓누르고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활떡거렸다.

“처음 나무가 조그맣을 때는 그래도 숨은 쉴 만했는데, 자꾸 자라나 이제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스님 어서 이 나무를 잘라내 주세요.”

“과보는 받아야 한다. 네가 진 빛을 갇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 고통을 받았으면 됐다.”

“아이고 큰 스님, 감사합니다.”

“내일 해가 뜨면 내가 있는 강으로 가마.”

주지스님은 눈을 번쩍 뜨고는 바람을 쫓겼다. 제자가 물고기로 변해 사는 강으로 나가기 위해서였다. 강으로

“다름이 아니옵고.”

“어서 말해보아라 다 들어줄 터이니.”

“그럼 얹치 불구하고 여쭙겠습니다.”

물고기 제자는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어 말했다.

“벤 나무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부처님 앞에 매달아 주십시오.”

주지 스님은 물고기 등에서 벤 나무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했던 향 냄새였다.

“그런 다음 저를 두드려주십시오.”

“그러하면.”

“두드려서 나는 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물에 사는 물고기에게는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악업을 씻어버리고 선업을 쌓는구나. 네가 하는 말마다 향기가 나는구나.”

주지 스님은 제자의 부탁에 따라 가지고 온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목어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하루에 한번씩 두드려 제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아이는 목어 이야기를 끝으로 듣고 나서야 왜 사물이 암자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마침 노승이 아이에게 사물을 하나씩 들어 질문하였다.

“종은 왜 두드리는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입니다.”

“북은 왜 두드리는고.”

“지상에 사는 동물(축생)들을 해탈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판은 왜 두드리는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해탈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어는 왜 두드리는고.”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해탈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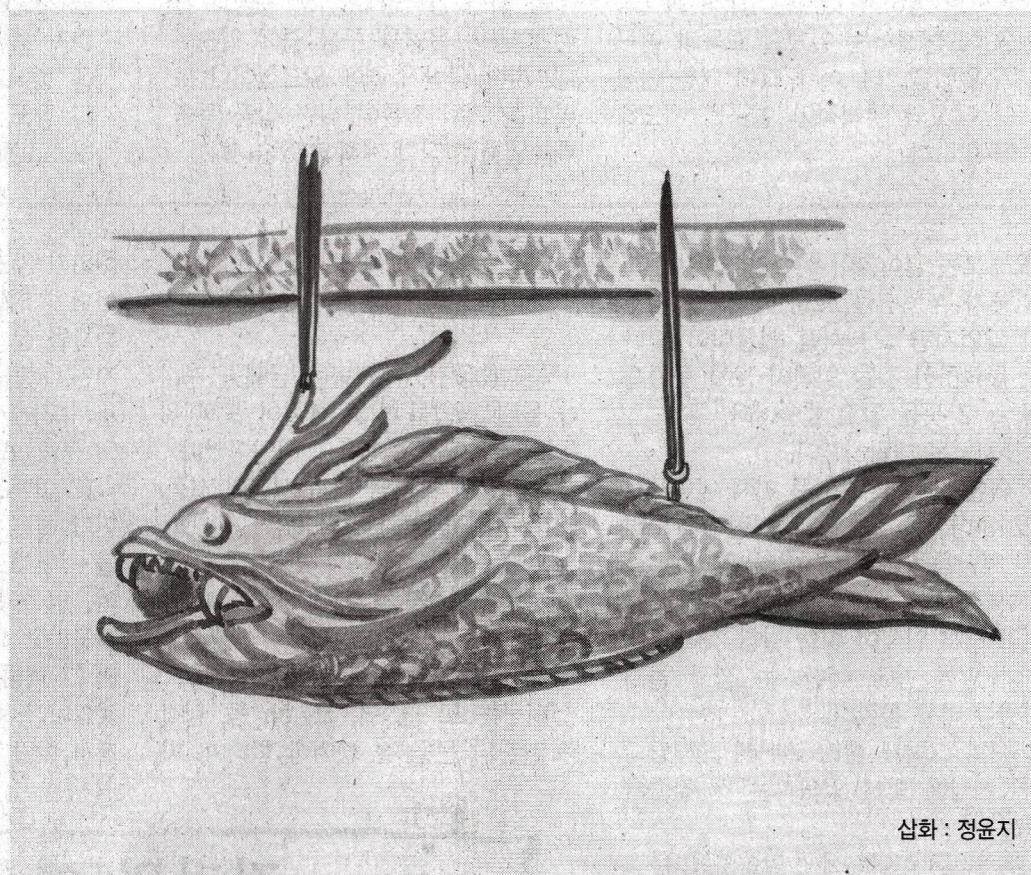
“이제야 알겠느냐. 이 깊은 산 속에서 사람과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는 게 스님의 일이란다.”

“네 스님.”

그 해 늦가을이 되어 첫눈이 내렸다. 암자 방 한쪽 지붕이 무너져 방바닥에 눈가루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노승은 아이가 잠든 밤에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옛날부터 암자에 전해 오는 시였다.

양기산 임시 거쳐 지공과 벽 영성하니 방바닥에 가득 부러진 눈 구슬! 그러나 목 움츠러어 가만히 탄식하네. 떠올리나니, 나무 밑에 기거하신 옛 어른의 일. 수행자는 방바닥에 뿌려진 눈가루를 보석같이 느껴야 하지만 그래도 집 없이 나무 아래서 수행했던 옛 스승의 고생에 비하면 목이 움츠러든다.

깊은 산 절간 처마끝에 매달려 무심한 바람 한 줄에도 울림으로 화답하는 풍경소리조차 물고기에게겐 해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오랜 세월 불자로 자처하면서 마음 끄집어내어 훌훌 벗어던져 버리지 못함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삽화: 정윤지

나가 배를 타자마자 주지스님은 독경을 하였다. 그러자 잠시 후, 물고기 한 마리가 뱃전에 나타났다. 과연 등에 나무를 단 물고기였다. 물고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큰 스님 평소엔 악업을 많이 지어 이렇게 미물로 태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과거에 제가 버린 콩나물이 가시로 변해 입에 걸려 먹이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스님, 부디 과거의 인연을 생각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해탈 범문을 하여주십시오.”

“좋다. 너를 위해 수륙전도재(水陸懺度齋)를 베풀어주마.”

주지스님은 약속대로 강에 배를 띄어놓고 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재가 끝나갈 무렵에는 물고기가 다시 뱃전으로 나타나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는 제 등에 난 나무를 베어주십시오.”

“좀더 가까이 오너라.”

주지스님은 노를 젓던 사공과 함께 물고기의 등에 난 나무를 톱으로 베어주었다.

“스님, 한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그게 무어냐.”

새들과 물고기들을 위해 기도

“이제야 알겠느냐. 이 깊은 산 속에서 사람과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는 게 스님의 일이란다.”

“네 스님.”

그 해 늦가을이 되어 첫눈이 내렸다. 암자 방 한쪽 지붕이 무너져 방바닥에 눈가루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노승은 아이가 잠든 밤에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옛날부터 암자에 전해 오는 시였다.

양기산 임시 거쳐 지공과 벽 영성하니 방바닥에 가득 부러진 눈 구슬! 그러나 목 움츠러어 가만히 탄식하네. 떠올리나니, 나무 밑에 기거하신 옛 어른의 일. 수행자는 방바닥에 뿌려진 눈가루를 보석같이 느껴야 하지만 그래도 집 없이 나무 아래서 수행했던 옛 스승의 고생에 비하면 목이 움츠러든다.

깊은 산 절간 처마끝에 매달려 무심한 바람 한 줄에도 울림으로 화답하는 풍경소리조차 물고기에게겐 해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오랜 세월 불자로 자처하면서 마음 끄집어내어 훌훌 벗어던져 버리지 못함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 심일학

바라밀 공부방

happylog.naver.com/baramildo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정각사 內
☎ 051)552-0705

여러분도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 공부방 이용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30명)
- 이용시간 : 학기중 오후 2시 → 6시(점심 제공)
방학중 오전 10시 → 6시(저녁제공)
- 이용방법 : 방문 - 입소상담 - 통보 - 이용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3시30분		영어(저)	수학(저)	영어(저)	요가
4시30분	미술	원어민(고)	오카리나(고)	원어민(고)	
4시30분	수업	영고(고)	수학(고)	영고(고)	국악
5시30분		원어민(저)	오카리나(저)	원어민(저)	

수행의 길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이어트 비법

자 인 행 (부산 정각사)

지난 주말 점심때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녀석에게 누나랑 같이 맛있는 것 먹으러 나가자고 했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싫다고 한다. 외식이려면 바지 한 가랑이에 두 다리 끼고 따라 나설 놈이 별일이다 싶어 혹시 어디 아프냐고 물어 보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했는데 비만이라는 판정을 받았더니서 앞으로는 먹는 것 좀 줄여야겠다며 조금은 불룩한 자기 배를 쓰다듬었다.

약간 통통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비만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저희 누나의 말 한마디에 아들은 "그렇지? 아직 비만은 아니지? 이 정도는 조금만 관중하면 금방 빠지겠지?" 하며 금방 싱거운 웃음을 흘렸다. "뭐 먹으러 갈 건데?" 하며 앞장서 현관문을 나서는 녀석의 뒷모습을 보고 딸과 나는 한참을 웃었다. 비만은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건강

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동원하여 다이어트를 한다. 하지만 한번 찐 살은 정말 빠지가 힘들다. 그래서 비만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과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식욕은 성욕과 함께 인간의 2대 기본 욕구이다. 우리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적당량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먹는 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식탐이 우리 몸을 비만으로 불고 간다.

특히 현대인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아 운동량이 부족하고, 잦은 회식이나 모임으로 과식하기도 쉬워 비만의 우려가 더 크다.

그러나 비만도 문제지만 지나친 다이어트도 비만 못지않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지나친 다이어트로 건강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종종 들린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이다. 코살라국의 파세다니왕은 음식을 탐하고 과식한 연고로 너무 살이 찌서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빠지고 땀을 흘렸다. 부처님은 계승을 읊으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먹는 것을 즐기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파세다니왕은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시종 윗타라에게 자기가 식사 할 때 마다 이 계승을 외워 달라고 했다. 왕궁에 돌아온 왕은 식사 때 마다 시

종 윗타라가 외워주는 계승을 들고 식사량을 줄이고 과식을 피해 마침내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 되어 80세까지 장수 하였다. 이 이야기가 아함경에 실려 있다.

경전의 내용처럼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 마다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자신에게 적당한 양의 음식을 취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중도(中道)인 것이다.

항상 과식(過食)이나 거식(拒食)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중도적 생활태도가 바로 부처님께서 파세다니왕에게 계승으로 전수한 다이어트의 성공비법이 아닐까?

우리 아들 녀석은 다이어트에도 중도(中道)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 혹시 알고나 있을지. 모르면 이야기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야기 하면 이해나 할지 모르겠다.

우리들의 이야기

가을남자 가을여자

가을이 오면 가을 여자는 혼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고 가을 남자는 곁에 누군가가 있어주길 원한다.

어느 후미진 골목 선술집에서 단풍 곱게 물든 어느해 가을 산기슭에 흘렸던 장미의 눈물을 기억하며 마음의 지도를 꺼내놓고 추억을 더듬어 가지만

가을 여자는 혼자 떠난 여행길에서 '여자의 인생'을 되돌아 보며 자신을 옥죄는 결박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깊숙이 숨겼노라 다짐하지만

가날뿐 신음 소리만 귓가에 맴돌 뿐 회상할 수록 장미의 모습은 흐릿하게 멀어져간다.

그건 늘 꿈꾸는 일상의 희망사항일 뿐 숨 죽였던 생명들이 소생하는 새벽이 오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첫차를 탄다.

혼자 술 마시는 가을남자는 그래서 더 쓸쓸하다.

가을 여자가 가을남자가 가을이면 앓는 병... 가을에는 다 그렇까?

- 일송정(다음카페/진언행자)

생활상식

◀ 먹다 남은 맥주로 가스 레인지를 청소

먹다 남은 맥주를 가스 레인지 청소에 활용한다. 맥주의 당분이 기름 때를 분해하기 때문에 걸레에 묻혀 닦기만 하여도 때가 쉽게 벗겨진다. 맥주의 특유한 냄새는 10 분 정도면 사라진다.

◀ 파스타 삶은 물로 가스 대의 기름 때를 제거

우동이나 파스타 삶은 물로 주방 가스 대를 청소하면 찌든 기름 때가 깨끗이 벗겨진다. 물에 녹은 밀가루가 기름기를 흡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물이 식기 전에 사용해야 한다.

◀ 튀김 솥에 사용한 밀가루로 기름 때를 제거

튀김 솥에 사용했던 밀가루에는 적당한 양의 수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름 때 청소에는 안성맞춤이다. 손가락 끝이나 부드러운 천에 밀가루를 묻혀 가스 레인지나 벽 등을 문지르면 깨끗이 닦인다. 밀가루와 물을 같은 비율로 섞어도 좋다.

◀ 굴 껍질을 끓인 물로 유리를 청소
감귤류의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리모넨(Limonene)'은 때를 분해하는 성분으로서, 굴 껍질 끓인 물을 세제로 활용할 수 있다. 잘 말린 껍질을 냄비에 넣고 몇 분간 끓여 식힌 다음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마른 걸레에 묻혀 유리나 기구를 닦으면 얼룩이 깨끗하게 사라진다.

◀ 청바지 조각으로 기름 때를 청소
단을 즐기고 남았거나, 입지 못하게 된 청바지가 있으면 15 cm 정도로 잘라서 모아 둔다. 까칠한 느낌을 갖고 있는 데다 강도가 적당하여 세제를 조금만 묻혀 닦아도 가스 레인지 등의 기구의 기름 때를 제거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다.

업(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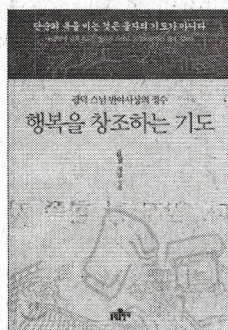
췌, 그리고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데, 그 과보는 현세에 받기도 하고 내세에 받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은 바로 이같은 업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우채 기자

이달의 추천도서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공덕 스님 반야사상의 정수

해담 스님/ 불광출판사



한국 불교의 생활화·대화·현대화·정착시킨 공덕 스님의 반야사상을 토대로 불가의 기도법을 소개한 책이다. 기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神) 또는 신적인 대상에게 대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기도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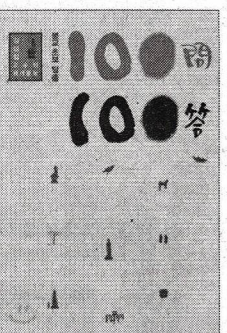
이 책을 엮은 해담 스님 역시 출가 이후 40여 년 동안 공(空)을 깨닫기 위하여 화두에 매달린 분으로 기도는 도의시하였다. 그런데 작년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은사이신 공덕 스님의 사상에 대해 새롭게 논쟁해 되었다.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기도 수행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행방

법"이라는 공덕 스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쳤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공덕 스님은 법성진리의 힘을 활용하여 본래 완전한 진리의 공덕이 자신과 환경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도의요, 기도야말로 참다운 수행이라고 역설하였다. 책은 기도를 통해 행복을 창조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수록하여 바른 기도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불교 초보 탈출 100문 100답
김성철 교수의 체계불학

김성철 저 /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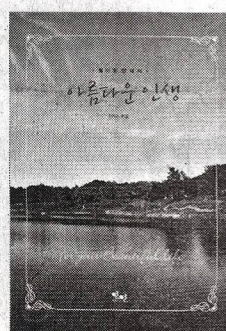


100문 100답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혹은 일상의 소소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

을 제시한, 불교입문서.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의 홈페이지에는 불교 초심자부터 불교 전공 학생, 물리학 교수, 스님 등 다양한 사람들의 기발한 질문들이 올라온다. 그 중 중북된 질문과 현학적인 질문을 제외하고, 100가지 질문을 엄선하여 이 책에 담았다.

아름다운 인생

웰다잉 안내서양장
안진수 저 | 아름다운인연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웰다잉(well-dying) 안내서. 웰다잉 준비학교 또는 강좌가 열리는 등 최근 아름다운 죽음이 사회, 문화 일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 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웰다잉이 단순히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의 삶을 담은 우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그려내

는 『아름다운 인생』은 죽음의 정의부터 시작해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 내 영혼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배우자와 웰다잉이야기 나누기, 아이들과 웰다잉이야기 나누기 등 다양한 주제로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한다. 본문은 1년, 48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직접 쓰고 읽는 과정을 통해 삶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야심경 강의

김성규 저/지우출판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성규 교수의 반야심경 강의. 반야심경은 물질계와 인간의 의식구조를 간단 명료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안에는 인류가 오래도록 갈구해 온 진리에 대한 답이 있다.

저자는 40년 전 처음 반야심경을 접하고, 그 가르침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한다. 이 책은 그때의 감동을 다른 이들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한 것으로, 반야심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하고 있다.



금산인삼

동원시장점 가-42호 02. 499-9006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김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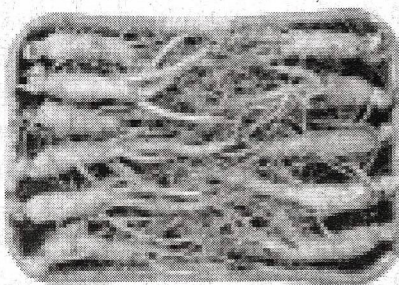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adaptogen: 어댑토겐) 효과: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03-24 동원시장내 가-42호

선학원, 제4회 학술회의 개최

'21세기 한국불교와 사찰경영' 사찰경영' 주제



▲은양호텔에서 개최된 선학원 학술대회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은 전국분원장 회의 및 제4회 학술회의를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은양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

학술회의는 '21세기 한국불교와 사찰경영'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사장 법진 스님이 기조 연설했다.

선학원이 주최하는 학술회의에서는 지역 사찰이 안고 있는 고민에 답할 수 있는 과제들을 연구한 성과발표와 지역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분원장 스님들의 고민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고명석 연구원의 '신도교육과 신도조직관리의 효율적 방안' 주제 논문은 신도교육과 함께 신도조직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니

즈(needs)'에 대한 주지 스님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찰의 주인으로서 신도들이 나설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진성신도들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사찰 운영의 안정화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찰에서 일탈하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신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찰이 종교공간만이 아닌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의 '사찰재정의 관리방안' 주제 논문은 그동안 사찰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적 관리 측면에서 수익사업 증대를 말해온 것과 달리, 사찰의 전통적 운영 시스템인 불사금의 적절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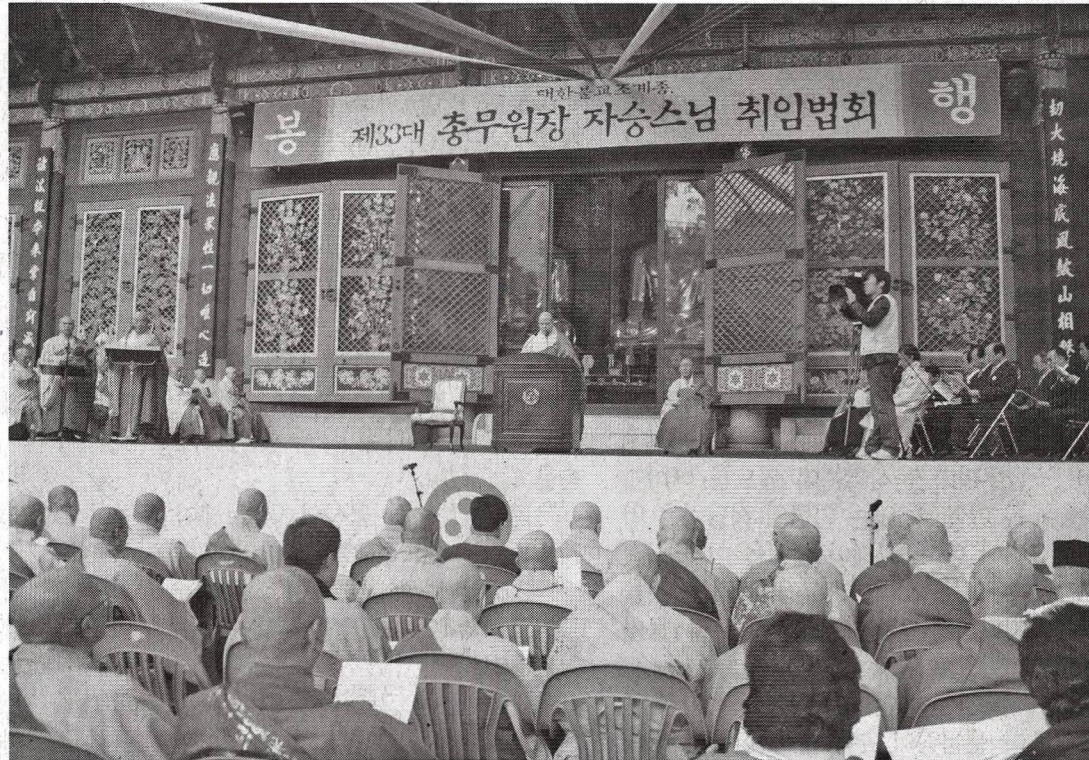
를 통해 재정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점에 연구를 집중했다. 그동안 사찰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기반여건 등의 부족으로 사실상 수익사업 추진이 힘든 사찰의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현재적 관리방안 모색에 연구를 집중했다. 특히 일본 조동종, 대만 자제공덕회와 불광산사 등의 재정 확보 방안과 관리에 대해 분석해 이를 우리 사찰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조기룡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사찰경영의 모범적 사례와 사회취 평가' 주제 논문은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석왕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구룡사 등 도심포교사찰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개별사찰들이 찾아야 할 성공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대형사찰들의 성장으로 인해 중소형 사찰들의 경영 문제에 봉착, 생존의 위기에 까지 몰리고 있는 '종교상업주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지역의 소규모 포교당 스님들의 현실고민을 드러내고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둘째 날인 6일 열리는 전국 분원장 회의에서는 2009년 재단 운영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150여 명의 분원장 스님들이 10개 분과로 나눠 전날 열린 학술회의에서 발표 토론된 사찰경영을 주제로 지역사찰의 고민을 정리해 발표하는 등 대안을 모색했다.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

"교육과 포교를 통하여 불교 중흥 이룩"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봉행된 자승스님 취임 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11월 5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취임법회를 통해 취임식을 가졌다.

총지종 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법회에서

종정여하 도림법전 대종사께서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단의 미래는 눈 밝은 선지식을 배출하는데 있으니 범부를 고쳐 성인이 되게 하는 수행가풍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

다. 이어 장적스님이 수행이력 소개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소통과 화합 없이 평화와 발전은 찾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불교

는 이제 사회와 소통하며 화합의 단초를 마련하고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통해 우리 민족과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 포교 없이는 종단은 물론 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 없다"며 "이는 앞으로도 우리 종단과 불교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최고의 명제이자 제33대 총무원이 나아갈 방향이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원융무애와 상생을 좌표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정사승 교계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국대 오영교 총장, 이견무 문화재청장,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청 앞 십자가 설치금지가 개신교 역차별?

종자연, 9일 성명...교회언론회에 공개 제안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지난 11월 4일 개신교가 종교편향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조선훈보 및 한겨레 신문 신문을 근거로 한겨레 한국교회언론회(이하 교회언론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11월 9일 '종교와 시민사회의 관계정립 계기 만들자'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회언론회는 종교, 시민단체 나아가 평범한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 개신교 단체가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시청 앞 광장 트리에 십자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개신교 역차별'이라며 정부에 대해 개신교 역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4일 조선훈보에 발표한 '정부는 종교편향 정책을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성탄절 점등행사

에 십자가를 세우지 말도록 정부를 심히 압박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성탄절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역지이고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언론회는 "불교계에서 종교편향이라는 신조어를 구호처럼 내세우며 정부와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침 철회 △각 종교별 정부 지원액 공개 및 감사 △석탄절 연등을 사찰 경내지로 한정 △국가에서 지원하는 템플스테이 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과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승원스님)는 11월 중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한국교회언론회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교회언론회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

을 둘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개신교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종자연은 "종교 갈등의 진원지로 보수개신교계가 지목돼 왔을 뿐 아니라 어려움에도 교회언론회는 더 이상 종교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매우 민감한 국가와 종교 간의 문제들을 거론했다"면서 "교회언론회가 적시한 사항들이 성탄절 십자가 트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호성 주장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자연은 "교회언론회가 공론의 장으로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뚜렷하게 펼쳐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는 지난 2월 자문회의 결과, "서울시청 앞 광장 트리에 설치된 십자가가 특정종교 상징물로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십자가 설치를 금지한 바 있다.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 암 투병

조계종 등 각계 위문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한 재불(在佛) 서지(書誌)학자 박병선(81)박사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

그는 지난 9월 '2009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인 초청대 입국했으나, 건강진단을 받는 중에 직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수원 가톨릭대 성민센터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 새 집행부 스님들이 박사를 위문 하였다. 박사는 병원을 찾아 준 스님들에게 고마

움을 전하며 "(내가)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모셔왔고, 또 주위 불자들에게도 두 보살을 잘 모신다고 권유 한다"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그리고 병인양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남은 꿈이라고 했다. 박병선 박사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고려 백운화상이 불교 선(禪)의 요체를 깨닫게 하기위한 명구(名句)들을 모은 것을 1377년 제작자들이

발간한 책)'을 프랑스에서 찾아내 1972년 세계동양학자대회에서 직지심체요절이 1455년 출판된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보다 78년 앞선 최고 금속 활자본임을 입증해 국제적 공인을 받았다. 한편 각계에서는 치료비와 금일봉 전달이 있었고, 서울대 사범대학 동창회는 박사를 '자랑스러운 서울대 사범대인'으로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리더 호텔에서 열린다. 그러나 참석은 어려울 전망이다.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상계 만다라 ***

태상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개대비야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영성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상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연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에게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생신위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연경연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사이즈 및 가격 (태상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 : 불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



불교계인사 54명 '친일인명사전'에

강대련·변설호 스님 등 친일단체 임원 중심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11월 8일 (친일인명사전)을 발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가 11월 8일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가운데 불교계 인사 54명이 포함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편찬위원회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등 불교계 중앙교단과 친일불교 단체 주요 임원, 부일협력행위가 뚜렷한 자, 친일 성향의 불교계 신문 발행인, 기고나 강연을 통해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자 등

을 중심으로 불교계 친일 인사를 선정했으며, <친일인명사전> 수록된 불교계 인사는 강대련, 권상로, 변설호, 이회광스님 등 54명이다.

불교계 친일인사 기준으로는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해 불교계에 친일세력을 구축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한 자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친일화한 불교계의 중앙교단(조선불교중앙교무원·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과 친일불교단체(조선불교단 등)의 주요 임원 △본사 주

는 강대련, 강성인, 광기종, 광범경, 권상로, 김경림, 김경주, 김동화, 김법룡, 김삼도, 김영수, 김영호, 김용국, 김재홍, 김성섭, 김정해, 김지순, 김진월, 김정암, 김탄월, 김태훈, 김한승, 박대륜, 박도수, 박병운, 박영희, 박원찬, 박윤진, 박찬범, 변설호, 손계조, 신운영, 신태호, 유재환, 윤삼범, 이덕진, 이동석, 이명교, 이보람, 이석두, 이종욱, 이태준, 이훈성, 이회광, 임석진, 장도환, 정병연, 정창운, 정중희, 차상명, 최취허, 허영호, 황태욱, 황병웅 등 모두

54명이 친일인사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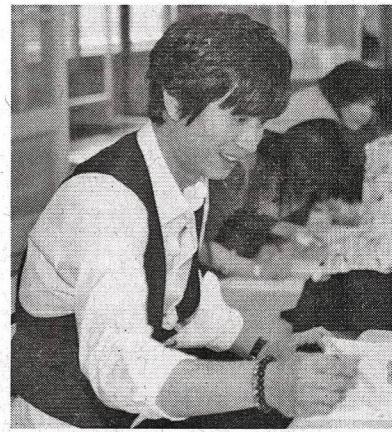
분야별로는 관료 1103명을 비롯해 경찰 789명, 매국·수작 134명, 제국의회 11명, 중추원 297명, 군 230명, 사법 183명, 교육 52명, 경제 26명, 언론 40명, 친일단체 395명, 지역 49명, 해외 736명, 문화계 161명, 종교계 183명 등이 수록됐으며, 전체 종교계 인사 183명 가운데 개신교 51명, 가톨릭 7명, 천도교 29명, 유림 42명이 각각 포함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재단지찾기 사무총장 해문스님은 "3.1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서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친일문 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불교계가 친일파제 산환수법 국회통과에 앞장섰던 점이나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환수 활동과 같이 민족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와 편찬위원회는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일제협력단체사건, 식민지통치기구사건, 자료집, 도록 등 총 20여 권의 친일문제연구총서를 간간할 계획 이다.

불자연예인 김민중, 한류팬과 템플스테이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 in 마곡사



◇기수 김민중 씨가 일본 팬들과 함께 마곡사 템플스테이에 참석했다.



한국의 불자 연예인과 일본팬 들이 함께하는 사찰체험이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스님)과 한국관광공사,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김민중 씨와 함께 하는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 in 마곡사 행사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 일정 으로 마곡사와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텔런트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중 씨와 그의 일본팬 70여 명이 동 참했다. 입재식을 위해 마곡사 연화당에 모여 있던 일본인들은 김민중 씨가 나타나자 우뢰와 같 은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은 "템플스테이를 위해 멀리 바다 건너에서 마곡사를 찾아준 일본인들과 독실한 불교신자인 김민중 씨를 환영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땅도 한 뿌리요 인류도 한 공동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스

님은 사무국장 진경스님이 대독한 환영사에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마곡사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불자로서 늘 생활포교를 실천한 김민중 씨의 깊은 불심 덕분"이라며 "오늘의 인연이 앞으로 양국 문화교류의 더욱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재식을 마친 일본인들은 마곡사의 전각을 둘러보며 사찰 안 내를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불화그리기다. 마곡사 산내암자 화림원에 주석하고 있는 용주사 전 주지 정현스님의 지도로 불화그리기 시간을 가졌다. 불화는 문수동자를 그리는 것으로 정현스님은 일본인들에게 "문수동자가 김민중 씨라고 생각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그려라"라고 부탁했다. 김민중 씨도 "잘 그리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불화그리기에 이어 단주만들기 시간도 가졌다. 마곡사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

친 참가자들은 전통불교문화원 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공양을 마치고 다목적 홀로 이동했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가을밤에 펼쳐지는 김 씨의 라이브 공연을 보기 위해서다. 이날 공연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제작한 템플스테이를 소개하는 영상과 김민중 씨가 출연한 작품들이 영상으로 상영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자신의 히트곡인 하얀 그리움과 착한 사랑, 아름다운 아픔 등을 부르며 열광하는 일본팬들의 환호에 보답했다.

지난 1988년 영화 아스팔트 위의 동키호테로 연예계에 데뷔한 김민중 씨는 드라마나 노래를 위해 무대에 설 때 근자 목걸이와 단주를 하고 나와 불자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며 활동하고 있다. 김 씨는 "마음이 답답하고 시간이 날 때 경기도 광주의 광덕사를 자주 찾는다"며 "단풍이 예쁘게 물든 좋은 계절에 일본팬들과 함께 해서 마음이 설레고 좋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는 경쟁력 높은 문화자원"

"국제화 잠재력 높다" OECD 보고서 발표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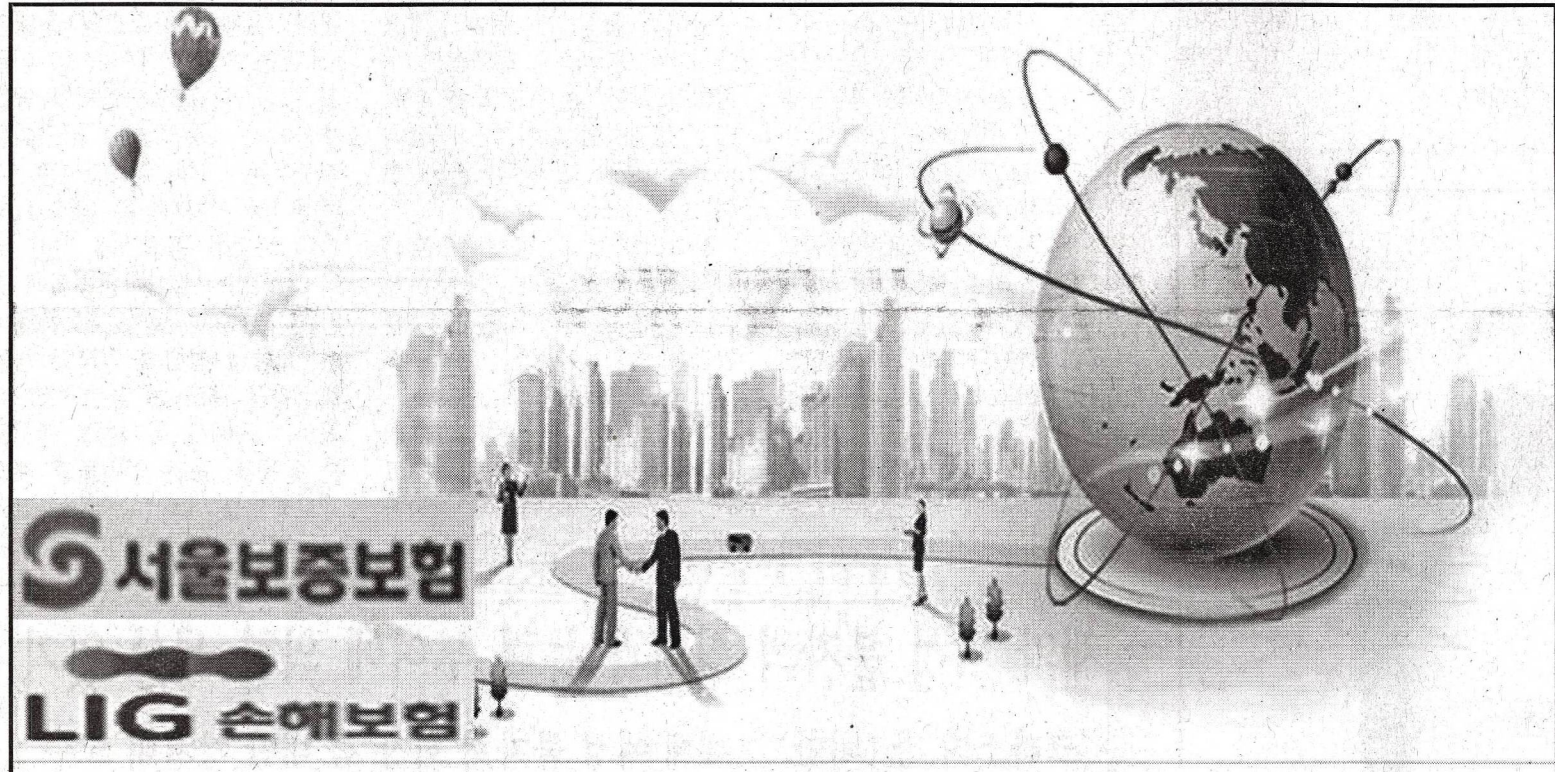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문화체험사업이 국제화의 잠재력이 큰 "매우 경쟁력 높은 문화자원"이라는 보고 서가 OECD에서 발표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스님)은 오늘(11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OECD가 참가국을 대상으로 발간한 '각국 주요

관광지의 매력도와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문화자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템플스테이 사 업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OECD에서 30개 국가의 각종 문화상품을 조사하 고, 이중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 된 우리나라와 호주, 오스트리 아, 폴란드, 멕시코의 사례를 담 았다. 템플스테이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템플스테이

참가 경험이 있는 외국인 36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서는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문화체험 상품으로, 국제화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경 제포럼이 발표한 관광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이 2007년 73위에서 2009년 26위로 47계단을 상승 하는데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밝 히고 있다.



청담대리점 대표 이원숙

서울 보증보험 강남지점(강남역2번출구) 02) 3420-2020 fax 3420-2021

010-7470-1992 cda0809@hanmail.net

MetLife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이만구

010 - 9921 - 9990
02) 739-2900

tot20009@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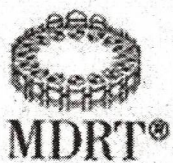
www.metlife.co.kr

MAGIC 지점 FSR / MDRT / AFPK

서울대은퇴설계전문가과정수료

우수인증설계사 / 부동산학석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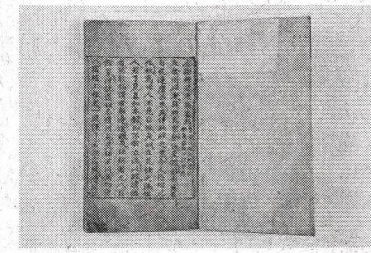
충북 박물관 미술관 연합전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 등 유물 120여점



◇국보 제106호 <계유명 전씨 아미타 삼존 불비상>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과 보물 제1408호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 117점이 한자리에 모였다.



◇보물 제1408호 <금강반야바라밀경>

국립충주박물관(관장 김성명)과 (사)충청북도박물관협의회(회장 김영주)는 10월 30일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충 북 박물관 미술관 연합전'을 개

최했다. 국립충주박물관 청명관 기획전 실실에서 12월 27일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 찾아가기'를 주제로 충북 지역 22개 박물관·미술관 등이 소장한 대표 유물 117점이 출품됐다.

김성명 관장은 "충북도의 박물관 미술관 연합전을 통해 지역 문화기반이 더욱 발전되고, 관람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43)229-6402

미군 최초 불교 군종장교 임관

미군 역사상 최초로 불교 군종장교가 탄생했다고 미국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의하면 미 육군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군법사인 토마스 다이어 군종장교가 임관, 12월 이라크로 파병된다.

참례고 목사였던 다이어 불교 군종장교는 명상수련을 통해 불교로 개종했으며, 미군 내 병사들의 불교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전 스님, 문태준 시인 '북콘서트'

도서출판 '마음의 숲'은 12월 2일 오후 7시 조계사 전통공연장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낭독회 '2009 마음의숲 북콘서트'를 연다.

주경 스님의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계속됩니다) 출간 기념도 겸한 이날 북콘서트에는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의 저자 성전 스님과 <느린보 마음>의 저자 불교방송 문태준 PD 등이 직접 책을 낭독할 예정이다.

제3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월정사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참가자가 늘어나서 10여개국 500여명의 재가불자, 재가불교 지도자, 재가불자 운동가와 학자 등이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15개의 주제 중 3개를 추천받아 요약, 지면에 옮겼습니다. (편집자 주)

재가불교와 실천불교

거스윈더부부 (독일) : 유럽 랩텐 센터 대표

Franz Gschwind and Johanna Manner-Gschwind



▲총지종 효강 종령이 거스윈더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불법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 실현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주는 스승,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는 승단, 그 승단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배운 가르침을 일상에 살아가는 자신에게 적용하는 재가불자입니다.

가르침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가 수행자들은 불법의 섭리를 통합하려 노력하고, 이를 통해 평화롭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모범사례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가 불자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실제로 다른 이를 돕기 위해서는 올바른 발원과 동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올바른 마음상태와 올바른 행동을 함께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바르지 못할 때 비록 우리가 남을 도우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관대함, 윤리, 인내, 열정, 집중 등 바라밀의 토대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특히 남들을 대할 때 배려, 양보, 윤리,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바라밀들을 어떻게 실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처님의 전생담인 <본생만>에 나오는 위스완따라 왕자이야기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위스완따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시하고 귀하게 여기는 왕국의 상징물인 거대한 흰 코끼리 까지도 보시를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공에서 꽃김을 당해 그의 가족은 숲속에서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숲으로 가는 도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거저에게 보시했고, 심지어 위스완따라를 시험하는 천인에게도 자신의 부인과 공주를 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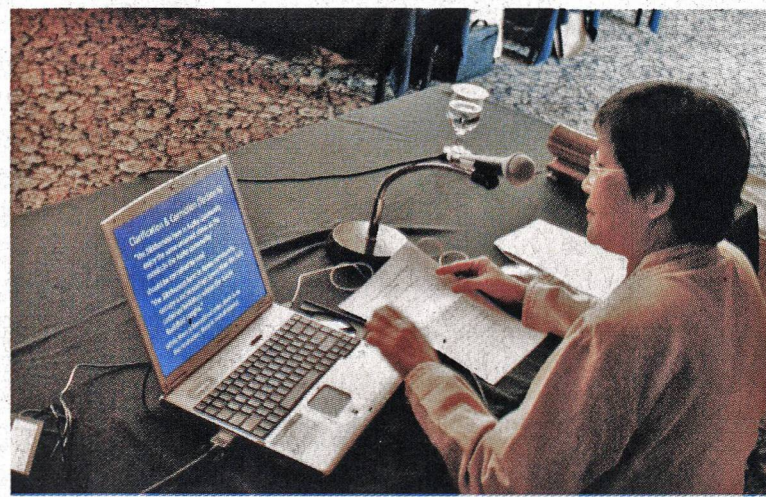
그러하여 모든 것을 내주게 되었고, 그 어느 것에도 전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대함을 완전 순수하게 진실되도록 현실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바라밀에 지나지 않으나 이 세상에서 재가불자가 불교의 세계 내에서 수행할 뛰어난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재가 불자나 선한 불자의 행위는 실천불교를 굳건히 하여 불교를 유지하는 밑거름이며, 다른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진실한 정신적 도를 따르도록 하는 훌륭한 예를 보인 것입니다. 불살생, 비폭력을 의미하는 자비는 자신과 남을 돕는 기본 덕목입니다.

아쇼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사회체계

봉솔리안 (태국) : 태국 국제 불교대학 예술파트 학장

Suwida S., Bong C.L and Sikkhamat Chinda Tangbhao



▲참가지와 토론하는 봉솔리안 학장

광장하는 물질만능주의와 세계화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공간이 점점 더 작아지고, 돈과 시간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두가지 중요한 힘의 의미와 모습을 생각 할 때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현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행하고 있는 불교 공동체 생활 운동인

아쇼크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돈의 지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용감하게 맞서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신적인 성취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운동이 아쇼크 공동체이다. 이들의 진정한 화폐는 돈이 아니고, 일과 봉사 그리고 공로가 그들의 화폐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성취가 우선이며 삶의 목표인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소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향한다. 이 공동체는 해마다 수익 바트보다 더 값진 물건을 만든다. 공동체 회원들은 그들이 가족(어린아이나 노부모 같은 부

양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 외에는 돈을 받지 않는다. 한 달에 많이 받아야 3,000 바트를 받는다. 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며, 개인 자산을 늘리지 않으려 하며, 소비와 필수품이다. 요즘 세상은 돈을 벌고 돈을 가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모습을 생각 할 때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현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행하고 있는 불교 공동체 생활 운동인

아쇼크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돈의 지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용감하게 맞서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신적인 성취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운동이 아쇼크 공동체이다. 이들의 진정한 화폐는 돈이 아니고, 일과 봉사 그리고 공로가 그들의 화폐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성취가 우선이며 삶의 목표인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소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향한다. 이 공동체는 해마다 수익 바트보다 더 값진 물건을 만든다. 공동체 회원들은 그들이 가족(어린아이나 노부모 같은 부

양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 외에는 돈을 받지 않는다. 한 달에 많이 받아야 3,000 바트를 받는다. 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며, 개인 자산을 늘리지 않으려 하며, 소비와 필수품이다. 요즘 세상은 돈을 벌고 돈을 가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모습을 생각 할 때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현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행하고 있는 불교 공동체 생활 운동인

아쇼크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돈의 지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용감하게 맞서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신적인 성취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운동이 아쇼크 공동체이다. 이들의 진정한 화폐는 돈이 아니고, 일과 봉사 그리고 공로가 그들의 화폐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성취가 우선이며 삶의 목표인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소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향한다. 이 공동체는 해마다 수익 바트보다 더 값진 물건을 만든다. 공동체 회원들은 그들이 가족(어린아이나 노부모 같은 부

크 혁신 불교 모임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 회원들은 모두 채식주의자들이다. 이 모임의 재가자들은 팔계나 오계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평화, 평등, 독립심, 자립심, 자족을 부르짖으며 실천해왔다. 아쇼크 불교 생활 방식은 모든 일상에서 정신적인 수련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일상 일과 속에서 명상하기, 탐욕과 욕망과 정신적인 때를 벗어나기 위해 소비도 최소화 한다. 수련도 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활습관은 정신적인 성취로 나아가길 뿐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며 창의성을 키르게 된다.

아쇼크 공동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 하지만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창조적이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금욕하고 냉소를 참아내자"라는 모토를 실천하며 산다. 사다라나보기를 수행하여 아쇼크 공동체의 총자산이라 할 만한 수십억 바트 정도를 공동으로 분배하게 했다. 그들은 방콕 근처에 새로운 유기농 재배 프로젝트에 투자 할 수도 있고, 아쇼크 센터에 병원을 짓거나 또는 두 개의 빌딩을 지을 수 있다.

여성들도 차별없이 당연히 지낸다. 실제로 아쇼크의 정당인 FFAE는 창당 이래 여성이 이끌고 있다. 아쇼크 공동체의 공동 재산이나 소유재산은 비구이든 비구이든, 고행 수행자이든, 수련생이나 재가자이든 남자가 여자인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 된다. 사다라나보기는 공평하며 올바른 불교의 사회 경제 체계이다. 오늘날 강한 도덕적인 공동체, 자급자족하는 경제구조, 자립하는 공동체, 유기농을 생산하는 공동체, 모든 기업들과 개발 프로젝트를 훈련하는 본부로서 태국에서 최고의 모델이 되었다.

재가 여성 불자의 실천과 능력 부여에 의한 세상 잇기

크리스티 장 (대만) : 세계 여성 불자회 회장 겸 대만 정치대 교수

Christie Chang

전통적 아시아 불교 사회에서의 재가 불자 여성이 맡은 전통적 역할들은, 효성스런 불자 여성, 부드럽게 열심히 일하는 불자 아내, 애정을 갖고 보살피는 불자 어머니 등에 국한 되어 왔습니다. 사원이나 선원은 딸, 부인, 혹은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가사 일에 모든 시간을 내야 하는 탓에 대부분 여성은 이와 다른 생각이 나 기어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야 비로소 산업화의 진전과 발전된 기술에 힘입어 가사 노동이나 잡사를 돌보는 일이 간편해진 탓에 여성들은 더욱 자주 불교사원을 방문하고 불사에 참여하고 불교 모임과 조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평등한 교육 수혜를 장려함에 힘입어 요즘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과 자신들의 집안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다른 잠재적 역할을 고려한다 해서 여성이 가정적 책임을 저버려야 함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불자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찬탄하며 <붓다 엄마 Buddha Mom>를 쓴 제클린 크레이머 (Jacqueline Kramer)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녀는 "엄마들은 부역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며 깨달



▲주제 발표하는 크리스티 장 회장

음을 얻을 수 있다" 고 장담합니다. 대만에서의 재가 불자 여성, 자원 봉사자들의 상호 협력을 통한 제 개인적인 관찰과 경험에 의거하여 저는, 가족과 존경하는 집단에 봉사하는 제한된 시간과 역량에도 이들의 학습열과 전통적 역할을 벗어나려는 열정을 주시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확장된 의미에서 어머니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 언제나 가족과 외부 세계를 연결시켜 왔다. 자주 불자 여성들은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나 자녀들과 이웃 사이의 훌륭한 중재자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어준다는 개념은 재가 불자 여성들에게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역할 혹은 "세계를 잇기"의 현재 의미를 확장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 나는 그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며 깨달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자들이 불교는 "84,000 도/방편/길"을 얻는 것이라고 말해진 이후 부처의 가르침 속에는 만인을 위한 무언인가가 있다고 믿듯이, 현대 재가 불자 여성들의 역할 역시 그만큼 다양합니다. 논리는 명확하고 쉽습니다. 불법 스승들을 더욱 필요로 하는 이 말법 시대에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불법 포교를 위한 책임을 불자 여성이 분담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재가 불자 여성들과 그들이 존경하는 불교 승단의 활동을 전통적 역할에 한정시키는 것 역시 대단히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글로벌 시대에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새로운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은 (진한) 쌍꺼풀 교정

작은 쌍꺼풀을 크게 하기는 비교적 쉬우나, 큰 쌍꺼풀을 작게 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특히 피부유리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정이 안된다고 하는 병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OU성형외과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여,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학술회의인 대한성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을 게재 하였습니다. IOU성형외과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재수술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순한 눈매 만들기 (눈꼬리 내리기)

양쪽 눈매가 치켜 올라가 있어, 사나운 인상을 가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면접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전 신데렐라) 출연자분도 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치켜올라간 눈꼬리를 내려주어서 사납고, 놀란 듯한 인상을 없애고, 수술 후 청순한 느낌까지 생기게 됩니다

IOU성형외과는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함몰된 눈 (꺼진눈) 교정

눈 위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안와격막내 지방이 위축되어 눈이 꺼져보입니다. 이렇게 함몰된 눈을 교정하기 위해 그냥 주사기로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지방이 주입되지 않아서, 눈을 감았을때 지방이 자각모양으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IOU성형외과에서는 원래 눈의 지방이 있는 자리인 안와격막내에 직접 지방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을 감았을때 울퉁불퉁하지 않게하며, 쌍꺼풀의 모양도 바로 잡아줍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강철욱

IOU 성형외과

NAVER IOU 성형외과 HTTP://WWW.IOU4U.COM

신사역 8번 출구 바로 앞 가나안 약국 2층

02) 549-0365 전화상담 및 문의전화

전문 클리닉 눈꼬리 내리기(청순한 눈매만들기), 함몰된 눈 교정, 진한 쌍꺼풀 교정, 틀창교 수술, 코 재수술 전문

성형 클리닉 쌍꺼풀, 알트임, 삼겹 쌍꺼풀, 안검하수, 쏘세지, 상안검, 하안검, 낮은코, 매부리코, 휘어진코, 화살코, 짧은코, 복코, 변형된코, 넓은코, 미세지방이식, 안면윤곽, 주름성형, 가슴확대, 가슴축소, 부유방/함몰유두, 여성형유방, 지방흡입, 흉터제거, 이물질제거, 필러, 모발/커다란질, 귀성형, 레이저리얼리프

영화에서 불교보기 ⑦ / 뷰티플 마인드

“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 이웃에 믿음이 좋은 가족이 살았다. 그 집 막내딸과 친구였고, 이런 친구를 둔 덕에 교회에 자주 드나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몸뚱이는 땅에 묻히는 순간 흙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20여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육신은 없어져도 영혼은 영원하다'는 나의 확고한 믿음이 깨졌을 때 적잖이 당황하게 됐다.

영혼이 없다면 난 이생에서 끝나버리는 건가? 육체의 소멸과 함께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는가? 쉽게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이전에 들도 보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에 구미가 당겼다.

이렇게 시작된 불교에 대한 의문은 <금강경>을 접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됐다.

모든 게 환상이라는 것이다. 꿈속에서 로또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깨어나면 도루묵인 것처럼 우리가 환상에 불과한 현실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물론 금강경이 언어 이전의 깨달음의 소리에 언어적으로 이해시킬 그런 진리가 아니고, 바라처럼 단번에 깨달아야 할 그런 진리기에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금강경>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천재 수학자 존 내쉬의 일대기를 영화로 그린 <뷰티플 마인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인다.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오직 존 내쉬에게만 보인다. 즉 그에게 환상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증상은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는 것이고, 존 내쉬 또한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환상 속에서 살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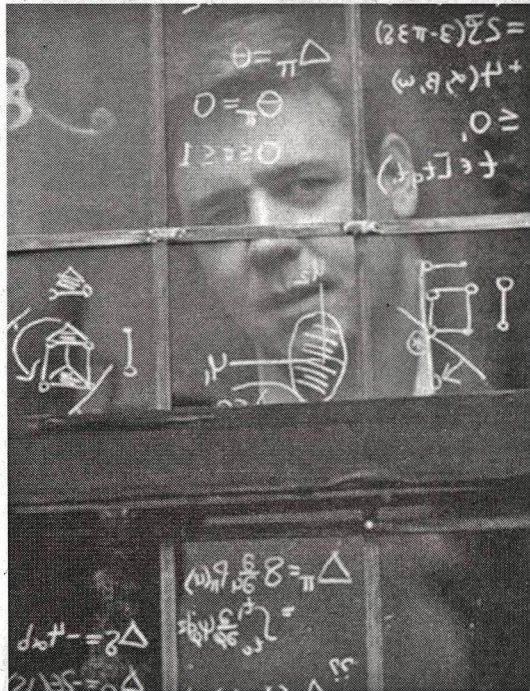
환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을 현실로 착각하면서 환상 속 인물들과 교유하며 수년의 시간을 보낸다.

그는 현실 보다는 환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현실과의 갈등은 점점 고조돼가고 현실적으로 그의 삶은 어려워져만 간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항상 만나는 어린 소녀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만고만하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것 봐, 너 미쳤잖아. 내가 보는 거 다 거짓이야.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애 안 보여. 그 애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해.”

아내고 남들이 다 '너는 환상에 빠져 있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만나서 말도 하고 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환상이라고 믿을 수 없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는 벼락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단한 발견을 계기로 자신이 환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존 내쉬의 삶은 변화를 맞게 된다.

자신이 보는 것이 환상임을 자각하자 그는 환상을 외면해 버린다. 롬베이트가 나타나고 정보기관의 남자가 나타나고 해도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존 내쉬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환상을 환상으로 바라보고 '넌 거기에 있구나' 하며 환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무단 애를 쓰고 환상에 걸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존 내쉬의 처지에 나를 대입시켜 놓고 보면 내가 보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게 환상이라는 것이다. 언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사라질 환상이라는 것이다.

- 김은주(자유기고가)

세상사는 이야기

국화꽃 단상(斷想)

어쩐지 스치는 바람이 스산하게만 느껴진다. 가을이 깊어 가고 있다. 이 가을 난 예쁘게 물든 단풍이 곱게만 보이지 않는다.

나는 국화꽃을 좋아한다. 국화꽃은 모든 식물이 빛을 잃어 갈 때 더욱 곳곳하게 피어나 자칫 마음마저 삭막해 질 때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국화꽃을 보고 있으면 나 자신도 국화꽃처럼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느낌이다. 국화꽃은 가을에 피어야 제대로의 향기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이 되면 곳곳에서 국화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는 축제에 참가할 기회가 없어 서운하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라는 시가 생각나는 부분이다. 탐스럽고 화려하게 핀 국화 보다는 소박한 모습의 들국화를 난 더욱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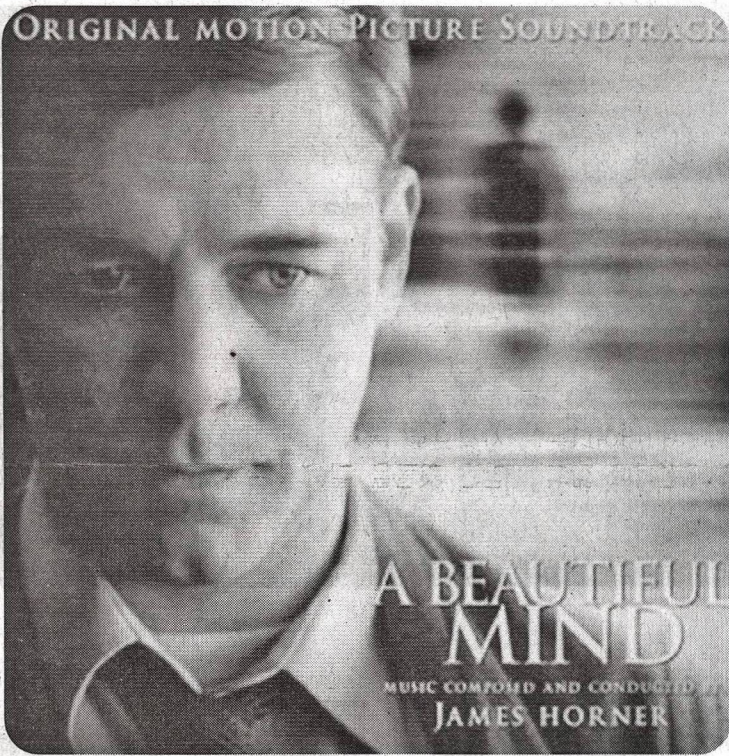
국화꽃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가꾸어진 꽃을 볼 수 있다. 이 가을이 다가 가기 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화꽃을 찾아가 내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아 오고 싶다.

그들은 그 어린 몸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보아 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쁘게 심어 놓은 꽃을 어느 누가 꼭 뽑아 가는 것이다. 새로 심어 놓으면 쥐가 파 놓은 것처럼 여기 저기 구멍이 나 있다.

그들은 그 어린 몸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보아 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가? 그들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으로 다가 오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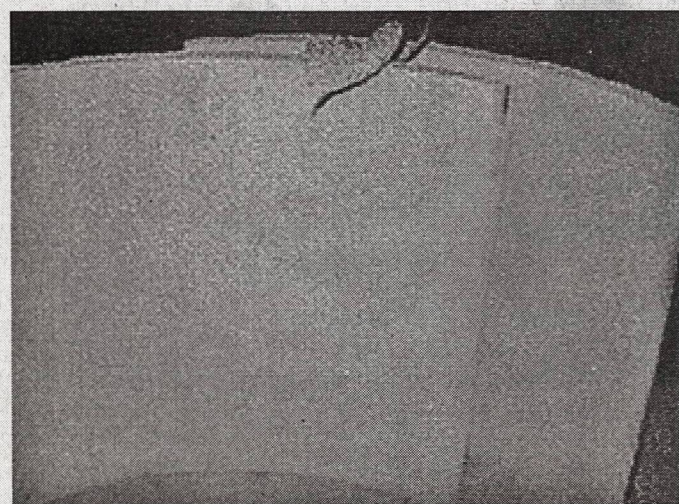
-박묘정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라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다.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중 요시 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 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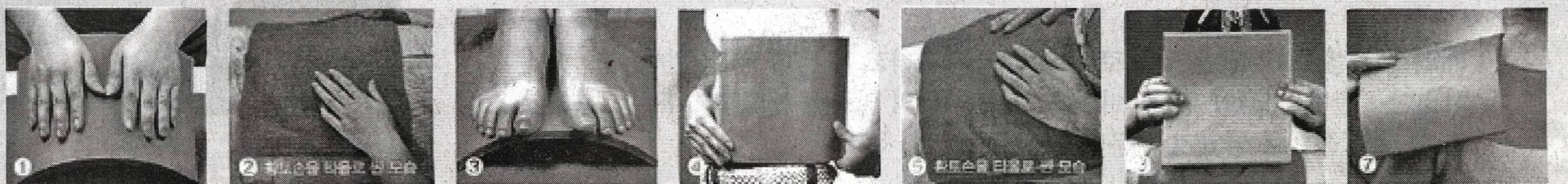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 053-425-7910



1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2 변비가 심하신 분은 등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대워주는 모습 3 무릎,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의자에 걸터 앉거나 가볍게 올려 놓는다. 4 옆구리 결림 등에 등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5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6 머리가 무겁거나 뒷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7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동 등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8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때 사용모습(엄지통 등)

III 제3회 국제재가지도자대회

“재가불교,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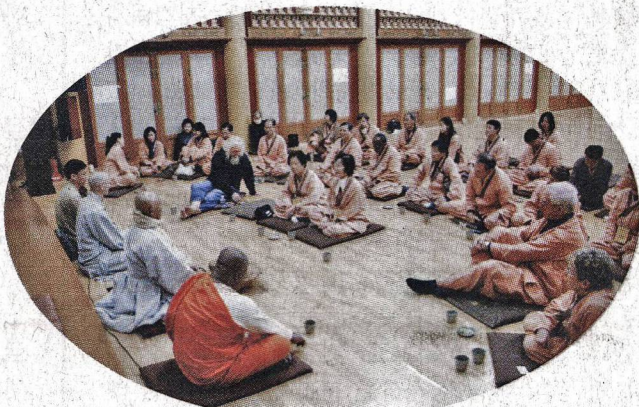
▲총지사 서원당 참배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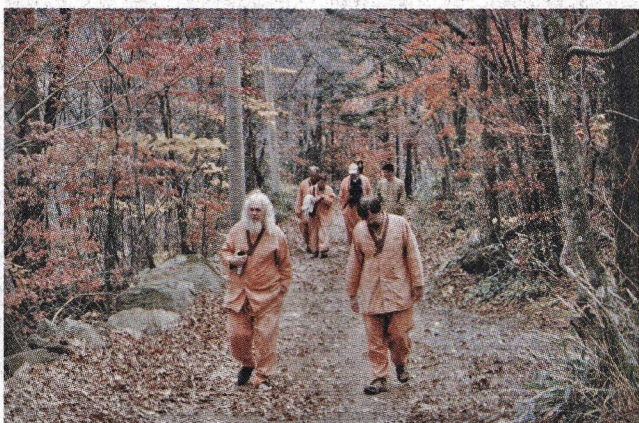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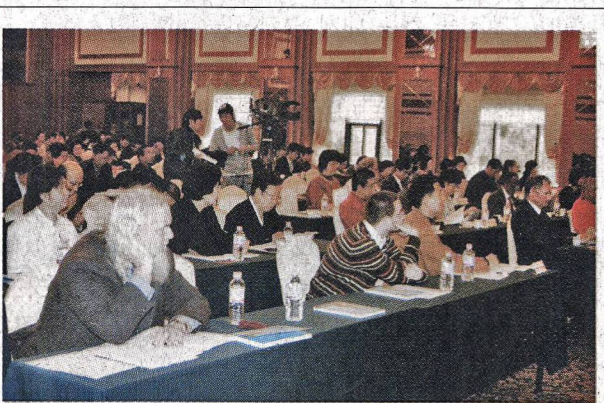
▲대회 참가자 호강 중령 예방.



▲월정사 템플스테이.



▲다담, 법설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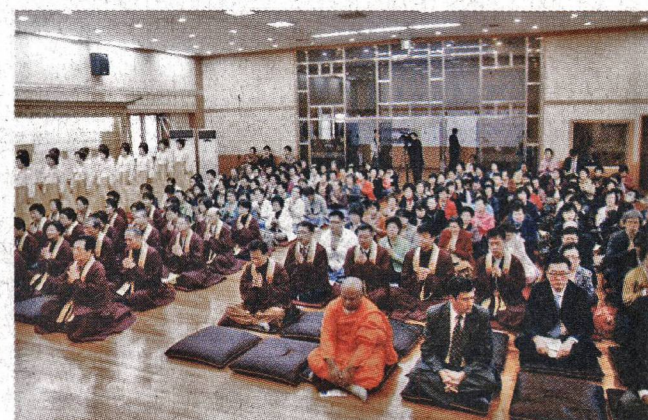


III 네팔 만다라 순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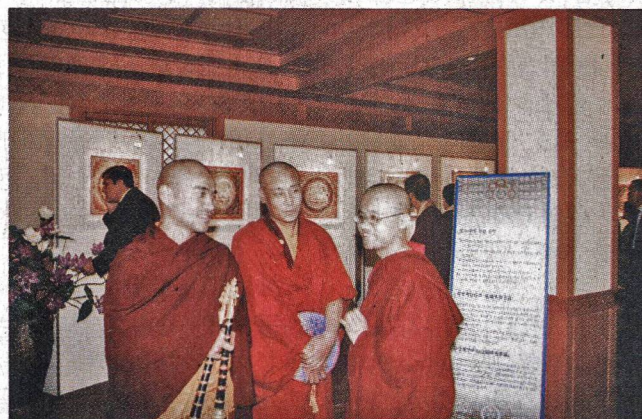
“한-네팔 문화 공감”



▲개막 테이프 컷팅식.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된 개막법회.



▲네팔 스님들.



▲BBS 김영일 사장 참석.



▲만다라전에 동참한 교도와 불자들.



2009년도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천은사 보리자(7mm)를 사용하여 2009년도 햇 보리수 108염주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 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종 각 사원 주교(총지종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